

done.

[dʌn]

- 1.do의 과거분사.
- 2.완료된, 끝난.
- 3.완전히, 아주

대부분의 종교가
당신에게 말해주지 않는
성경 이야기

캐리 슈미트

Copyright © 2010 by Striving Together Publications.
All Scripture quotations are taken from
the King James Version.

First published in 2005 by Striving Together Publications, a ministry of Lancaster Baptist Church, Lancaster, CA 93535. Striving Together Publications is committed to providing tried, trusted, and proven books that will further equip local churches to carry out the Great Commission. Your comments and suggestions are valued.

All rights reserved. No part of this book may be reproduced, stored in a retrieval system, or transmitted in any form or by any means—electronic, mechanical, photocopy, recording, or otherwise—without written permission of the publisher, except for brief quotations in printed reviews.

Striving Together Publications
4020 E. Lancaster Blvd.
Lancaster, CA 93535
800.201.7748
www.strivingtogether.com

Cover design by Jeremy Lofgren
Layout by Craig Parker
번역: 최 현준
글교정: 김 예녹

ISBN 978-1-59894-111-1

Printed in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모든 성경 구절은 킹제임스 흠정역으로부터 인용되었으며,
이 책의 한국어판 저작권은 Striving Together Publications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출판사의 사전 승인 없이 어떠한 책의 내용이나 표지등을
복제, 인용할 수 없습니다.

목차

여는말.	v
하나—육체 이상의 존재	1
둘—세상의 오직 두 가지 종교	11
셋—어디로 가는지 아는 것	29
넷—선천적 결합	35
다섯—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지불 방식. . .	49
여섯—대리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63
일곱—유일한 기적의 대리인	71
여덟—완전히 지불된 대가.	81
아홉—가장 위대한 선물	95
열—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105
닫는말—새로운 피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	121

여는말

만약 하나님께서 당신과 단둘이 앉아 당신의 질문에 답하시고, 당신이 가진 의문에 관하여 변론하며, 또한 당신이 어떠한 이의를 제기한다해도 이를 허락하신다면, 당신은 하나님의 이 제안을 받아들이시겠습니까? 당신은 그분의 주장하시는 바를 깊이 생각하고 그분의 목적하시는 바를 이해할 의향이 있습니까? 그분의 말씀을 믿으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분은 당신에게 바로 이러한 초청을 하셨습니다. 성경의 이사야서 1:18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하

나눔께서는 당신의 어떠한 질문도 두려워하지 않으시고, 당신의 수없는 의구심에도 놀라지 않으십니다. 아니, 사실은 그와 정반대입니다. 그분은 당신의 삶의 아주 사소한 부분까지도 완전히 알고 계시고, 당신이 그분께 개인적으로 다가가서 삶의 문제들에 대한 이야기를 그분과 함께 나뉘달라 초청하십니다.

저는 당신이 이 책의 페이지를 넘기면서 바로 그렇게 하길 원합니다. 조용한 장소를 찾아서, 당신의 마음을 열고, 사람의 마음에 단순하고 강하게 다가오는 그 메시지를 (간혹 성경의 메시지가 종교 기관들에 의하여 희석되고 왜곡되어지기도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하나의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과 놀랍도록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 교회의 강대상이나 신앙 서적들 가운데서는 이 메시지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작은 아이라도 이해할 수 있지만, 대부분의 어른들이 쉽게 놓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는 이성적인 사고로 검증될 수 있기도 하지만, 단순한 믿음을 통해서만 받아들여질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의 삶을 영원히 바꿔 놓을 수 있습니다. 이 메시지는 당신이 평생에 고려할 가장 중요한 메

시지입니다. 이 메시지는 말 그대로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이 메시지를 이해하기 위해 잠깐 시간을 내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어디서 당신이 이 작은 책을 찾아냈는지, 혹은 어떻게 이 책이 당신에게 전해졌는지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우연이라고 믿지 않습니다. 어쩌면 당신은 그동안 삶에 대한 어떤 해답을 찾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제도화된 종교에 냉소적이면서도 하나님의 진리에 대하여 다소 호기심을 느낄지도 모릅니다.

지금쯤 당신은 단순한 시간 이상의 뭔가가 우리의 삶에 존재하고, 당신 자신은 그저 죽으면 없어질 육체 이상의 무언가라는 것을 마음속으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의 이유와 목적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희망이 있을 것입니다. 그저 태어나서 살다가 죽는 것 이상의 무엇인가가 있을 것입니다. 당신은 분명 그것보다 더 가치 있고, 당신의 미래는 그것보다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마음속 깊은 곳에서 당신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들이 (때로는 당신의 마음이 마치 풀 수 없는 얼키고 설킨 실타래 같을 수도 있지만) 당신의 마음 안에 쓰여 있고, 당신의 양심 안에 새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은 당신의 영적인 유전자의 일부분입니다. 당신은 지적으로 설계된 세상을 보며 당신이 창조되었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또한 이렇게도 좋은 것을 많이 만드신 당신의 창조주가 좋으신 분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사는 이 세상에는 허다한 고통과 문제들이, 그리고 수 많은 질문과 의구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의 존재를 알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이 세상에 주셨습니다. 당신은 마음 속 깊은 곳으로부터 더 많은 것을 바라고, 더 많은 뭔가가 있을 거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만약 당신이 그분을 찾는다면 더 많은 것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존재하시고, 그 하나님이 당신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는 것을 잠시 동안이나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신뢰할 수 있는 증거를 보고 그것이 당신의 삶에 있어서 무엇을 의미하는지 고려해 보시겠습니까?

만약 삶, 죽음, 그리고 영원에 대한 당신의 결론들이 잘못된 정보 위에 세워졌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잠시나마 하나님께서 정말로 계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이 당신을 만드셨고 당신을 열정적으로 사랑

하신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분께서는 당신을 위한 완벽하고, 영원한 목적을 가지고 있으신데, 정작 당신은 볼 수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당신을 파멸시키려고 작정한 무자비한 적에게 인질로 잡혀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구하기 위한 구조 임무에 임하고 계시고, 이 모든 일이 당신의 삶의 배후에서 벌어지고 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어디서 영원을 보낼지 알 수 있다면, 만약 당신이 여태껏 가져왔던 모든 두려움을 영원히 떨쳐낼 수 있다면, 만약 이러한 것들을 해결해 주실 놀라운 사랑의 하나님께서 바로 지금 당신의 문을 두드리고 계시다면, 당신은 그분을 모셔 들이겠습니까? 당신은 그분께 기회를 드리겠습니까? 이 하나님에 대하여 알고 싶지 않으십니까?

만약 하나님께 사랑받다는 것이 당신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라면, 제가 부탁하는 것은 단지 하나님과 당신의 마음이 이 책을 통해서 이어질 수 있도록 그분께 기회를 드리라는 것 뿐입니다.

계속 읽어보십시오. 저는 당신이 이 이야기를 좋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1장

육체 이상의 존재

그는 테이블에 저를 마주보고 앉아서, 자신이 50년 인생에서 처음으로 무언가를 찾고 있다고 허심탄회하게 인정하였습니다. “지난 3년 사이에 나는 무신론자로부터 믿는 사람으로 바뀌었네. 그동안 내 삶의 모든 좋은 일과 나쁜 일을 함께 돌아보니, 내가 굳이 이렇게 좋은 삶을 살아야 할 이유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 나는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였다네.”

그는 제가 즐겨 찾는 레스토랑의 매니저였는데, 어느 날 저는 지금 당신의 손에 들려있는 이 메시지를 그에게도 소개해 주고 싶은 충동을 느꼈습니다. 우리는 그

날 세 번째의 대화를 나누고 있었고, 그는 그저 시간의 흐름과 무의미한 삶 이상의 그 뭔가가 그의 삶에 있을지도 모르겠다고 처음으로 생각하고 있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자기에게 여러 가지 삶의 의문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삶에는 그가 아직 이해하지 못한 무언가가 더 있을 것이라고 바랬습니다.

우리의 대화가 끝나갈 때 쯤, 저는 앞으로도 계속 그와 함께 그의 의문들에 대하여 서로 이야기를 나누고 그 주제들에 관하여 토론해도 되겠냐고 공손히 물었습니다. 그의 대답이요? “물론, 자네가 내가 묻는 걸 개의치 않는다면야!” 그 때 저는 그에게 충분한 “생각할 거리” 들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가 생각한 것을 성경 구절들로 증명하여 그가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와 같은 마음으로, 저는 우리가 이 여정을 함께 시작하며 당신이 이 첫 번째 중요한 사실을 깊이 생각해 볼 것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당신은 육체 이상의 존재입니다!

대중문화의 메시지와 반대로, 당신은 자신이 그저 살과 피, 그리고 불규칙적으로 진화한 생물학적인 물질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알고 있

습니다. 당신은 매일 아침마다 면도하고, 씻고, 옷 입는 그 이상의 무언가가 당신에게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생명이 음식보다 소중하며 몸이 옷보다 소중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2:23). 또, 하나님께서는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여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흠 없이 보존해 주시기를 구하노라.” (데살로니가전서 5: 23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야고보서 2:26에서는 “영이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라고 말씀하셨고, 고린도후서 4:16에서는 “…우리의 겉 사람은 썩어 없어져도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는도다.” 라고 하시며, “겉사람” (우리의 몸)과 “속사람” (우리의 혼과 영) 사이를 구분하셨습니다.

육체 이상의 존재. 이것이 왜 그렇게 중요한 걸까요?

자, 우선 첫째로, 이것은 당신이 미래에 죽음 이상의 것을 예기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당신이 단지 육체 뿐인 존재라면, 당신이 예기할 수 있는 전부는 죽음 뿐입니다. 만약 죽음이 미래가 지니고 있는 전부라면, 어느 누가 어떻게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만약 죽음이 인생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라면, 인생의 무엇이 그렇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둘째로, 이것은 당신이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만약 당신이 우연히 생긴 생물학적 사건 이상의 존재라고 한다면, 당신은 창조되었다는 말입니다. 당신이 창조되었다면 당신은 창조주께 가치를 지닌 존재입니다. 그분은 당신을 어떤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만드셨습니다. 당신은 중요하고,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삶은 그저 운명으로 엮어진 불규칙적인 사건들 이상의 것입니다.

셋째로, 이것은 당신에게 소망이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당신에게는 육체적인 삶과 죽음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바로 당신에게는 현재의 어려움들을 지나 언젠가 훨씬 좋은 곳으로 갈 것이라는 소망이 있습니다.

“삶의 고난 뒤에는 죽음 뿐이다” 라는 격언을 들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은 인생에 대한 꽤 절망적인 생각이고, 성경이 분명히 가르치는 바는 확실히 아닙니다. 물론, 삶은 때때로 아주 힘들고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맞습니다. 우리 모두는 결국 죽습니다. 하지만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 안에는 그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삶에는 보이는 것 그 이상이 있고, 당신의 이야기에는 그저 시간 그 자체 이상의 뭔가가 있습니다.

증거를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양심입니다.

당신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 말의 뜻은 이렇습니다. 어떻게 생물학적인 물질이 자연적으로 양심을 발달 시킬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제가 냉장고의 감정을 상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지 않습니까! 양심은 혼에 속한 것—영적인 것—이고, 고깃덩어리는 영적인 것들을 만들어내지 못합니다. 고깃덩어리는 그냥 고깃덩어리일 뿐입니다. 고깃덩어리는 좋다거나 나쁘다고 느끼지 못합니다. 그것은 그냥 가만히 놓여 있다가 생명이 다하면 썩어 없어집니다. 제가 무례하게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저 분명하게 말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의 양심은 당신에게 혼이 존재함을 증명합니다. 양심은 옳고 그름에 대한 당신의 내면적인 지식입니다. 양심은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주신 창조주에 대한, 그리고 모든 피조물 안에 있는 그분의 도덕적인 기준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무언가를 숭배한다는 사실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것을 쓰셨다는 증거입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 유전의 한 부분입니다. 당신이 어디로 가든지 모든 사람은 누군가, 혹은 무언가를 숭배한다는 사실을 발견할 것입니다

다.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는 무신론자조차도 자신을 숭배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곧 신이 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로마서 1장을 통해 그분께서 저들의 마음에 분명하게 써 주셨고, 저들 안에서 나타내신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을 고발하십니다.

로마서 1:20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분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분의 영원하신 권능과 신격은 창세로부터 분명히 보이며 만들어진 것들을 통해 깨달아 알 수 있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변명할 수 없느니라.” 같은 장의 19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자기 자신을 모든 인간 안에 보이셨다고 말씀하시고, 21절에서는 우리가 이 내면의 지식을 의도적으로 부인하겠다고 선택할 때, 우리의 마음이 어두워진다고 설명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로마서 2:15에서 그분의 율법이 우리 마음속에 기록되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런 사람들은 또한 자기 양심이 증언하며… 자기 마음속에 기록된 율법의 행위를 보이느니라.”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로마서 1:20에서 아주 간단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변명할 수 없느니라.”

창조주의 존재나 우리의 삶에 대한 그분의 관심을 부정하는 것은 말 그대로 우리의 양심과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 안에 기록하신 진리를 무시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하나의 기본적인 결론에 다다르게 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보는 것보다 믿음에 의해 움직이도록 의도적으로 설계되어져 있음이 틀림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믿음을 통해 우리는 세상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깨닫나니 그런 즉 보이는 것들은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만들어지지 아니 하였느니라” (히브리서 11:3).

보이는 것들은 (이것은 저와 당신입니다) 나타나 보이는 것들로 (이것은 우리 주변의 세상입니다) 만들어지지 아니하였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누구인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그리고 어디로 가는가는 당신이 볼 수 있는 것보다 당신이 볼 수 없는 것과 더 큰 관련이 있습니다.

당신은 바람을 볼 수 없지만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을 압니다. 당신은 공기를 볼 수 없지만 그것에 의존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당신은 희망, 기쁨, 혹은 평화를 볼 수 없지만 마음속으로 이러한 것들을 아주 간절히 원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을 볼 수 없지만 그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고, 당신의 마음은 그분께 사랑 받고 온전히 받아들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육체 이상의 존재? 물론입니다! 당신의 몸은 그저 참된 당신을 위한 임시적인 거처일 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지어 이것을 “성막” 혹은 텐트(고린도후서 5:1)라고도 부르십니다! 당신이 매일 밤 한 벌의 옷을 벗고, 다음날 아침에 다른 한 벌을 입는 것처럼, 어느날 당신은 당신의 몸을 비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죽음이라고 부르는데, 이는 문자적으로 “분리”라는 뜻입니다. 당신의 혼이 그 “텐트”를 비울 것입니다. 그 순간, 당신의 몸은 호흡, 동작, 그리고 다른 기능을 멈추겠지만, 진짜 당신—속사람—은 여전히 계속해서 살아갈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당신은 육체 이상의 존재입니다! 당신의 몸을 갖고 있는 동안 잘 보살피되, “당신이 눈으로 볼 수 없는 것”을 놓칠 정도로 육적인 것에 너무 초점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은 혼입니다. 당신은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신은 창조되었고, 당신은 중요합니다. 당신은 가치있는 존재입니다. 당신에게는 영원한 목적이 있습니다. 당신이 실마리를 찾을 수 있기를—당신이 눈으로는 볼 수 없는 것을 마음으로 보게 되기를—갈망하는 창조주가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모든 상황을 이해하

고 파악할 충분한 정보를 주셨고, 당신이 그분께 개인적으로 다가오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이 장을 닫으며, 짧은 숙제를 하나 내드리겠습니다. 에베소서 1:18에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너희의 지각의 눈을 밝히사 그분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다시 말하자면, 당신은 제대로 작동하고 있거나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제 2의 눈—지각의 눈—을 갖고 있습니다.

책을 계속 읽어 나가기 전에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께 이렇게 간단하게 기도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저는 제가 육체 이상의 존재인 것과, 제가 보지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영적인 삶에 관한 많은 것들이 어찌면 존재할 수 있음을 이해하며, 또한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런 것들에 대해 읽어갈 때, 제 지각의 눈을 열어 주시고, 제가 놓치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습니까? 저는 진심으로 진리를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

제2장

세상의 오직 두 가지 종교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을 것 같습니까? 수백? 어쩌면 수천? 단지 미국에 있는 온갖 믿음 체계와 종교 기관만을 이해하려 하는 것으로도 황당한 일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종교가 무엇을 믿고, 그들이 어떻게 다른지 알아내려고 시도하며 상당한 혼란과 좌절을 겪습니다.

실제로, 모든 종교를 같은 범주 안에 던져 놓고 “종교는 다 똑같아. 우린 모두 다 같은 곳으로 가게 되어 있어! 그냥 무엇이든지 믿기만 하면 말이야!” 라고 하는 것이 요즘 유행처럼 번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편하기는 하지만, 사실 말이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이

들 각각의 종교가 믿는 바는 광범위하게 다릅니다. 실제로, 어떤 종교들은 그 믿음이 정반대에 위치하기도 합니다. “모든 길들은 같은 곳으로 통한다.” 라고 결론짓는 것은 괜찮은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은 조리에 맞지 않고, 성경으로 증명되지도 않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 모든 종교적인 “보푸라기”를 걸러내고 문제의 정확한 핵심을 찌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진실을 오류로부터, 사실을 허구로부터, 구별해 낼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진짜 계획과 인간의 값싼 모조품을 분별할 수 있을까요? 이 질문들에 대한 답은 당신이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합니다.

제 본래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당신은 세상에 얼마나 많은 종교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둘이라고 하면 믿으시겠습니까?

사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둘 중 하나의 기본적인 범주에 넣을 수 있습니다. 당신은 작은 차이로부터 심오한 신학적인 분류까지의 모든 외부적인 요소를 벗겨내고, 아주 쉽게 이 문제의 핵심을 찌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대부분의 종교는 우리가 첫 번째 장에서 이야기한 것에 동의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창조주와 영적인 세계를 인정합니다. 그러나, 바로 그

창조주에 대한 정의와 영적인 세계를 이해함에 있어서 차이점들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점은, 사람들이 어떻게 창조주를 알며, 어떻게 평화로운 “죽음 뒤의 삶”을 맞이할 수 있는지가 여러 집단을 가르는 중요한 요소라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해봅시다.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가? 어떤 형태로나 방법으로든지, 세상 대부분의 종교는 이 두 가지 기본적인 질문에 대답하려 힘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이렇게 많고 복잡한 종교를 두 개의 기본적인 믿음 체계로 단순화할 수 있을까요?

바로 두 단어, DO 혹은 DONE.¹입니다. 이 단어들을 기억해 두십시오. 왜냐하면 이 책의 끝 부분에 이르러 매우 중요한 단어들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DO 종교들을 봅시다. 사실 이들은 종교 체계입니다. 이들의 중심 메시지는 “하나님께서로부터 받아들여지고 천국으로 들어가기 위하여 무엇을 행해야만[DO] 하는가”입니다. 이들 종교가 공통적으로 합의하는 점은 사람이 어찌다가 하나님께서로부터 분리되었으며 그분께로 회

1 이곳, 그리고 이 책 전체에 반복하여 나타나는 DO와 DONE은 “...을 하다” 이란 뜻을 가진 동사 do와 “완료된, 끝난” 이란 뜻을 가진 과거분사 done을 의미합니다.—역주

복되어지기 위해선 무언가를 행해야[DO]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시스템 안에서의 하나님께서는 화난 대체 교사 같습니다. 그분은 학생들이 나쁜 행동을 하는 것에 정말 화가 나 있습니다. 그분은 천국 어딘가에서 전 인류가 자신을 불쾌하게 한다고 화가 난 채 계시고, 모두가 선한 일을 행하는 것[DOING]으로 자신들의 잘못을 만회하기를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보좌에 팔짱을 끼고 앉아서, 인류가 선한 행위나 그분을 위한 종교적인 행위를 통하여 자신들의 실수를 보상하거나 속죄하기를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행하길[DO] 원하시는 것”의 정의는 광범위하게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수 많은 종류의 신앙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핵심, 그 본질은 여전히 같습니다. 그 메시지는 단순히 이것입니다. “DO” 옳은 일을 하십시오. 그른 일은 하지 마십시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지 당신이 천국에 들어오는 것을 보장하실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똑같은 마카로니와 치즈²를 가지고 52가지 다른 방법으로 요리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들 종교 각각의 요지와 중심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에게 화가 나 계십니다. 그러므로 당신은 그분

2 치즈 가루를 뿌려 구운 마카로니 요리.—역주

을 기쁘게 하기 위하여 선한 일들을 행하기 시작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 DO의 범주 안의 모든 종교는 각기 다른 “DO”와 “DON'T”의 목록을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의 목록은 한없이 길고 지루합니다. 당신의 죄들을 고백하십시오. 침례 혹은 세례를 받으십시오. 돈을 기부하십시오. 머리를 밀어버리십시오. 공항에서 꽃을 파십시오. 짐짐마다 인쇄물을 판매하고 다니십시오. 이 목록은 사람의 상상력만큼이나 끝이 없습니다. 게다가 매 10년마다 새로운 종교들이 새로운 목록들과 함께 생겨나고 있습니다.

어떤 종교는 좀 더 기본적이고 일반적입니다. 선하게 사십시오. 친절하십시오. 전반적으로 나쁜 일 보다는 선한 일을 더 많이 하십시오.

어떤 시스템의 목록은 극단적이다 못해 해괴하기까지 합니다. 자해 행위의 규제화, 유아 희생제사, 자살, 살인, 그리고 고통스러운 형태의 구속이나 고행.

어찌 되었든 간에, 이러한 것들의 기본적인 의도나 중심 메시지는 같습니다. 당신은 행위로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께서 제시하시는 목록을 이행해야 하고, 하나님의 요구를 행해야[DO] 하며, 하나님의 분노를 가라앉히고, 그럼으로써 하나님의 용서를 구

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지구상의 수백만의 사람들에게 지워진 궁극적인 종교적 속박의 형태입니다. 그들은 두려움에 포로로 사로잡혀 있고, 종교 행위의 복잡한 시스템에 묶여서 그것이 그들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영원한 생명을 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이 DO 종교들은 그 모양과 구조가 광범위합니다. 그들은 각양각색으로 다가옵니다. 하지만 이들은 모두 행위에 기반을 둡니다. 하나님은 공사 감독이고 우리 인간은 강제 노동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선, 우리가 그분을 기쁘게 하는 일들을 행 [DO]해야 합니다.

이런 시스템들에 대한 가장 슬픈 점은 이들이 오로지 절망과 속박만을 제공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이들 시스템은 결국 사람들의 마음에 하나님께로부터 거부되었다는 느낌을 주고 “내가 충분히 했나?” 라는 영원한 불안감을 남겨둡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 기보다는 노예 감독으로서 여기게 되며, 마음 속에 오직 “하나님과의 친밀감” 이외에 다른 감정만이 남게 됩니다.

이러한 시스템들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는 의혹으로 채웁니다. 내가 만약 뭔가를 놓쳤다면 어떻게 하지? 내가 만약 하나님의 요구에 맞게 살지 않았다면? 내가 만

약 틀린 목록을 이행하고 있다면? 만약 나의 목록에서 뭔가 결정적인 요소가 빠져 있다면? 나는 충분히 선하게 살았나? 얼마나 선해야 선한 것이지? 혹 내가 충분히 선하게 살지 않았다면?

이러한 시스템들은 부유하고 강력한 종교를 세우는 데 훌륭합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사람들을 노예로 만들 뿐, 마음 속의 두려움과 갈망은 아랑곳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양심을 치유하거나 진정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들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께 우리를 개인적으로 인도하기 위하여서는 어떠한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이 시스템들을 볼 때 우리가 해야 할 질문은 “하나님께서서는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입니다. 하나님께로 회복됨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을 얻기 위한 하나님의 가르침은 무엇일까요?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이 이 사실을 깨닫지만, DO 종교 중 어느 하나를 받아들이는 것은, 성경의 중심적인 가르침을 내던져 버리는 것입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직접 보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자신의 긍휼에 따라 다시 태어남의 씻음과 성령님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고...” (디도서 3:5).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선한 일들을 하는 것으로는 하나님의 은총을 입을 수 없습니다.

또, 하나님께서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는 어떤 육체도 그분의 눈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나니...” (로마서 3:20)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그분께서는 “너는 선한 행실들로써 내 눈앞에서 너 자신을 정당화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하나 더 있습니다. “일을 하지 아니할지라도 경건치 아니한 자를 의롭다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느니라” (로마서 4:5).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문자적으로 당신이 선한 일을 함으로써 그분의 은총을 입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보다 더 분명하게 말씀하실 수 있을까요? “사람이 율법의 행위로 의롭게 되지 아니하고...” (갈라디아서 2:16).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일해서 그분의 은총을 얻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은 “너희 자신에게

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에베소서 2:8-9)라고 말씀하십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게 무슨 뜻일까요?

간단히 말해서, 이 지구상에 DO의 목록 같은 것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까지 고안된 종교 시스템들 가운데 당신으로 하여금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은총을 입도록 돕거나, 조금이라도 그분의 임재에 가까이 갈 수 있도록 도울 수 있는 것 따위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분명 저는 선한 일을 행함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드릴 수 있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선한 삶도 좋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다가가는 법과 그분과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정직함, 선한 삶, 그리고 자선 단체에 기부함의 온갖 부가적인 혜택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이런 행위들을 함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점수를 얻을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하시거나, 받아들이시거나, 용서하시거나, 혹은 더 사랑하실까?

대부분의 종교는 “예… 당신이 우리 목록을 이행하
기만 한다면요”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서, 그분께서는 아니라고 말씀
하십니다. “우리가 행한 의로운 행위로 하지 않으시고…”
(디도서 3:5). 그분은 “너는 일을 함으로써 내게로 올 수
없다. 행위[DO]로는 나의 은총을 입거나 나에게 받아들
여질 수 없다” 라고 성경에서 되풀이 하십니다. 하나님께
서 사용하신 가장 충격적인 표현은 아마 이사야서 64:6
에서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
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
아 가나이다.”

이 구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네가 최선을 다한다 할
지라도 그것을 무의미하게 만들 만큼 우리 사이를 엄청
나게 갈라놓는 무언가가 있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선한 행위는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갈라놓은 문제를 해결
하는 데에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선 나
중에 더 이야기 할 것이지만, 여기서 당신은 하나님께서
결코 행위가 우리의 구원을 가져다 준다고 말씀하지 않
으신다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행위[DO]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내가 옳은 것들을 행[DO]할 때, 하나님께서 나를 더욱 가까이 하고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다고 가르치는 구절은 성경 어디에서도 찾을 수 없습니다.

왜냐고요? 자, 하나님께서는 ‘내가 어떻게 행하느냐’ 보다는 ‘내가 누구냐’ 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분은 ‘나를 다스리는 것’ 보다는 ‘나와 관계를 맺는 것’ 에 더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냉랭한 종교 따위에 감명 받지 않습니다. 그분은 가까운 관계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행[DO]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허드렛일을 할 경우에도 행[DO]한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에서 다시 이 주제로 돌아올 테지만, 우선 또 다른 단어를 봅시다. “DONE” 입니다.

DONE. 완성된. 완료된. 완전한. 끝마친. 준비된. 이루어진. 달성된. 완벽한. 이 얼마나 굉장한 단어입니까!

세상 대부분의 종교들이 DO의 범주에 속하지만, DONE의 범주는 여전히 존재합니다!

성경의 참된 메시지는 “DONE”입니다. 다시 말해서, 당신을 하나님께로 회복시키고 그분과 함께 할 영원한 생명으로 데려다 주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미 다 이루어졌다[DONE]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에 달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문자적으로 이 구절은 “완전히 지불되었다” 라는 뜻입니다. DONE.

이것은 예수님께서 돌아가시기 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들 중 하나입니다. 그 말씀을 하시던 순간 예루살렘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성전—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건물—안에는 밖의 볼 수 있는 장소로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가장 성스러운 장소를 분리하는 휘장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순간, 그 휘장이 기적적으로 위로부터 아래로 반으로 찢어지며 모두에게 활짝 열린 것입니다.

마치 이 일은 갑자기 하나님과 사람을 나누던 무언가가 이제는 완전히 제거되고, 하나님께서 전 인류를 그분에게 곧바로 오라고 초대하는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전 인류에게 “DONE!” 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DONE은 “더 이상 이루어야[DO] 할 것이 없다” 고 말하는 것입니다. 값은 치러졌습니다. 빛은 용서되었습니다. 속죄는 이루어졌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것을 벌려고 하거나, 이것을 위하여 일하거나, 혹은 이것을 손에 넣기 위하여 무언가 행[DO]하려고 한다면, 당신은 시간을 낭

비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미 되어졌습니다[DONE].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말씀하신대로, “다 이루어졌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당신이 당신의 가족을 위하여 훌륭한 크리스마스 선물을 준비해 놓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당신은 저축하고, 쇼핑하고, 포장하고, 꾸미며 모든 준비를 이미 다 마쳤습니다. 드디어 크리스마스 아침에, 흥분한 아이들이 계단을 뛰어 내려왔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런데, 아이들이 모여 앉아서 선물들을 열어 보는 대신 당신을 위해 열심히 일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차고 안을 청소하고, 세차를 하고, 설거지를 하고, 당신의 구두를 닦고, 그들이 찾아낼 수 있는 모든 다른 일들도 하기 시작합니다. 심장마비에 걸리거나 앓는다면, 당신은 아마도 무척이나 실망할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을 멈추고, “너희들 뭐 하는 거니? 지금은 착한 일을 할 때가 아니라 선물을 나눌 때야!” 라고 할 것입니다.

아이들이 이렇게 대답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빠, 엄마, 저희는 엄마 아빠의 선물을 받을만한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열심히 일을 해서 얻기로 결정했어요. 저희가 선물을 받을 만한 자격이 생기도록 봉사하고 노력하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도 당신은 아무것도 필요 없다고 하실 것입니다! 당신은 아이들에게 저축하고, 쇼핑하고, 선물을 사는데 당신이 얼마나 고생하였는지 말할 것입니다. 당신은 그냥 크리스마스 아침을 즐기고 아이들에게 선물들—당신의 값없는 사랑의 표현—을 주고 싶을 뿐이지 그들의 봉사를 원하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적어도 그 당시에는 말입니다).

이것이 인류를 향한 하나님의 메시지입니다. “너희가 바쁘게 무엇인가 행하고[DOING] 있는 이상, 너희는 내가 이미 이뤄[DONE] 놓은 것을 놓치고 있단다.” 선물은 준비 되었고, 식탁은 마련 되었고, 그 이상으로는 아무것도 행[DO]할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준비는 끝났습니다.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당신을 향한 그분의 초대는 그분을 위하여 행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 나아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종교를 통틀어, 정말 두 종류만 존재합니까? 바로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직 두 가지 종교.

“DO” 아니면 “DONE” 입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종교 혹은 관계.

하나님께서서는 사람들을 그분께로 인도할 어떠한 체계를 설립하시기를 원하실까요? 아니면, 좀더 개인적인 관계를 바라실까요? 어쩌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분을 아빠나 아버지라 부르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이 상황을 명백히 할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과의 관계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가까운 관계들은 DOING 즉, 행함의 결과가 아닌, 상태[BEING], 또는 속한 상태[BELONGING]의 결과입니다.³ 당신은 육체 이상의 존재이고, 창조주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창조주를 알 수 있는 길은 무엇일까요? 그 두 질문—어떻게 우리가 하나님께 다다르고,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가는가?—에 대한 그분의 답은 무엇일까요? 성경 안에 그분께서 하신 대답은 분명합니다.

당신은 천국으로 가는 길을 일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그곳에 가기 위하여 아무것도 행할[DO] 수 없습니다. 당신의 방법대로 행함으로는 하나님의 임재 앞에 갈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직원과 상사의 관계’ 이상의 것을 원하십니다. 그분은 냉랭한 종교 이상의 것, 즉 친밀한 관계를 원하십니다.

3 BEING, 동사 be의 동명사로 “...임,” “...됨,” 즉 “누구인가?” 를 뜻함.

BELONGING, “(…에) 속함” 을 뜻함.—역주

가장 중요한 점은 당신과 하나님 사이의 거리를 좁히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것이 이미 DONE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의 은총을 입거나 구원을 얻기 위하여 당신이 행할[DO] 수 있는 것은 아무 것도 없습니다.

참으로 세상에는 오직 두 종교 밖에 없습니다. DO와 DONE. 당신은 행위에 붙들려 있습니까? 당신은 자신이 옳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생각하며 행위의 시스템이라는 덫에 걸려 있습니까? 당신은 하나님께 다다른 길을 얻고자 노력하고 있습니까?

저는 사람들에게 자주 이 질문을 묻습니다. “당신이 오늘 죽는다면, 천국에 갈 수 있으십니까?” 흥미롭게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네, 제 생각에는 그럴 것 같습니다.” 라고 대답합니다. 제가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라고 다시 물어보면 그들은 이와 비슷하게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고, 선한 것들을 행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무슨 대답을 하고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나는 무언가를 행[DOING]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행위[DOING]에 붙들려 있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은 성경의 중심 메시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만

약 당신이 행위에 기반을 둔 종교 시스템을 믿고 있다면, 당신은 하나님께 다다른 참된 길을 놓치고 있습니다.

당신은 이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당신은 무엇을 믿습니까? DO입니까? 아니면, DONE입니까? 당신은 종교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계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렇게 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린 27쪽까지 왔고, 약 104쪽 가량이 더 남았습니다. 이제 당신은 자신이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한 그분의 지침이 행위[DOING]를 포함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 서둘러 가겠습니다. 다음 장에는 아마도 당신이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아주 좋은 소식이 있을 것입니다...

제3장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

당신이 육체 이상의 존재라는 것을 이해하고 나면, 한 질문이 당신을 끈질기게 괴롭힙니다. 나의 육체가 죽을 때, 나의 나머지 부분은 어디로 가는가? 그냥 유령처럼 사람들에게 가끔씩 나타나면서 세상 주변을 어슬렁거리나? 아니면, 다른 생명의 형상으로 환생하나? 연옥에 머물며 천국을 향한 길을 얻으려 계속 일하며 노력할까?

모든 사람은 각자의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의견만으로는 당신의 영원한 목적지를 위해 내기 걸 만한 종류의 것이 못됩니다. 이들 질문의 대답을 찾기 위해선 하나님께서 실제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보기

위하여 다시 한번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은 분명 당신의 육체가 죽은 후에도 진짜 당신이 어딘가에서 계속 살아갈 것이라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9:27은 말씀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들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뒤에는 심판이 있나니...” 간단히 말해서, 모든 사람은 한 번 죽지만, 그 뒤에 하나님 앞에 서서 영원한 운명이 결정되기를 기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이 그 “장소”에 대하여 뭐라고 말하는지는 더 뒤의 장에서 논할테니, 너무 앞서가지 마십시오. 지금 당장은, 당신이 단지 이 질문을 깊이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당신은 당신이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알고 싶습니까? 만약 당신이 어디서 영원을 보낼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당신은 그것을 알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DO 종교들의 문제점입니다. 이들은 당신을 알게 하기보다는 궁금해 하는 채로 내버려둡니다. 이들은 당신을 확신이 결여된 체계 안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들은 당신이 “충분히 했나?” “옳은 것들을 한건가?” “제대로 한건가?” 라고 생각하는 채로 내버려둡니다. 결국, 당신은 “나는 정말로 어디로 가고 있는 거지?” 라는 의문 속에 내버려집니다.

최근, 저는 이웃의 한 숙녀분과 이러한 것들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녀는 존경할 만한 삶의 방식, 행복한 가정, 그리고 종교적인 과거를 가진 좋은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녀에게 혹시 천국에 갈 확신이 있느냐고 물어보았을 때, 그녀가 할 수 있던 최선의 대답은 “그랬으면 좋겠어요!” 였습니다. 그리고서 그녀는 얼굴에 혼란스럽다는 듯한 표정을 띄며 “그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나요?” 라고 그저 말할 뿐이었습니다.

아마 당신도 지금 그것을 궁금해 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을 확실히 알 수 있나요?

여러분, 좋은 소식은 우리가 이 질문에 대하여 추측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영원에 대하여 추측하거나 두려워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당신이 어디로 나아가고 있는지 알기를 정말로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영원한 운명이 확정되었음을 확실히 알 수 있는 기회를 당신에게 주기 위하여 모든 노력을 다 하셨습니다.

어쩌면 당신이 한 번도 본 적이 없을 구절을 하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대부분의 종교 시스템은 이 구절을 피해가려 합니다. 이 구절은 요한일서 5장13절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들

을 쓴 것은 너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음을 너희가 알게 하고…” 보셨나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네가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구절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충분히 이해하십시오. 잠깐 살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확실히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의심하거나, 혹은 후회하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알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꽤나 중요한 구절입니다!

이제 이 질문에 대하여 생각해 보십시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를 알고 계십니까? 당신은 바랄 수 있습니다. 당신은 낙관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그럴듯한 생각을 가지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당신은 알고 계십니까?

“알다”의 ‘KNOW’라는 단어는 완전한 확신과 이해를 뜻합니다. “안다는 것”은 의심, 망설임, 혹은 모든 의문을 지워 버립니다. “안다는 것”은 의심과 씨름하는 대신에 사실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안다는 것”은 두려움 가운데 좌절하지 않으며 진리를 신뢰합니다.

“어디로 가는지를 아는 것”이 가진 영향은 무엇일까요? 어떻게 이 지식이 당신의 삶을 바꿀 수 있을까요?

자, 우선 첫째로, 이 지식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을 완전히 제거할 것입니다! 아마 세상이 가진 가장 큰 두려움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지식이 모든 의심들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습니다.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디모데후서 1:7에서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두려움의 영을 주지 아니하시고 권능과 사랑과 건전한 생각의 영을 주셨느니라.”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은 두려움이 없는 건전한 정신과 권능과 사랑의 영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둘째로, 이 지식은 당신의 전 생애에 대한 다른 관점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당신은 삶보다 더 큰 무언가를 준비하며, 죽음 너머의 무언가를 기대하며 그것을 향하여 살아갈 것입니다. 한마디로, 당신은 희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어딘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어디로 가는지에 대하여 의문을 가지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이 아는 바 안에 쉼을 얻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죽은 후 당신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에 대해 확신을 가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이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기 원하십니다.

어쩌면 당신은 이 구절을 한 번도 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아무도 당신에게 많은 사람들을 괴롭히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과 의문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길이 있다는 것을 한 번도 말해주지 않았을 수도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계속 읽어갈 이 책이 그러한 좋은 소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로워집니다. 하지만 미리 주의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 최고의 소식 이전에 먼저 접해야 할 나쁜 소식이 있습니다. 그러니 조금만 참으십시오!

선천적 결함

“너는 내가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줄리가 무척 망설이며 (마치 정말은 대답을 듣고 싶지 않은 것처럼) 물었습니다. 저는 대학생이었으며 레스토랑에서 일을 하고 있었는데, 그녀는 제 믿음에 대하여 거의 조롱거리로 삼았다고 해도 좋을 정도로 어지간히 비판적이었던 직장 동료였습니다.

이 일이 있기 며칠 전 날 밤, 가게 문을 닫는 중, 그녀가 코가 비뚤어지도록 술을 마시고는 레스토랑에 들어왔었습니다. 손님들이 가게를 비운 뒤, 그녀는 저의 믿음에 대해 고래고래 소리치며 폭언을 퍼붓기 시작했었습니

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저주하며, 제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인지에 대해 말했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이 채 안된 오늘, 그녀가 청소를 하다 말고 진공청소기를 돌리고 있던 저를 갑자기 멈춰 세우고는 “자기를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냐...” 고 물어보는 것이었습니다.

솔직히 저는 진심으로 이렇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너는 그렇게 하나님을 저주하고, 내 믿음을 조롱하고 나서도 내가 너를 나쁜 사람이 아니라고 말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냐?” 하지만, 그렇게 말하는 것은 비판적이고, 오만하며, 심지어는 위선적인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한 말은 자기 방어적인 장치에 불과할 뿐, 정말로 그녀에게 필요한 말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마음속 깊이 자신이 선하다고, 영원을 보장받을 만큼 선하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거기다가 당신이 누군가에게 그 사람의 실패에 대하여 이야기 해주려 한다면, 보통은 (우리 중 어느 누구라도) 자기 방어로 대응합니다. 우리는 진심으로 우리 자신이 그럴저럭 괜찮다고 믿고 싶어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자신이 완벽하다고까지 말하는 사람을 여태껏 만나보지 못했습니다. 흥미롭지 않

습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이 완벽하다고 말하지는 않겠지만, 그렇다고 나쁘다고 불려지는 쪽도 원하지 않습니다. 아무튼 우리 인간들은 결국 “그렇게까지 나쁘지는 않다”라고 부를 수 있는 임의의 회색 지대를 만들어 내었습니다.

이 회색 지대는 거의 모든 사람의 양심을 달래줍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신만의 기준을 세우고, 우리 자신과 비교했을 때, 우리보다 못한 누군가를 언제나 찾아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통 우리는 우리보다 못한 다른 누군가에게 손가락질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그럭저럭 괜찮다”고 변명합니다! 이것은 마치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괜찮다고 스스로 믿기 위한 이상한 게임 같습니다.

그 순간 레스토랑에서 줄리는 제가 “줄리야, 나는 네가 나름대로 결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아니야, 너는 나쁘지는 않아”라고 말하기를 원하고 있었습니다. 도대체 제가 누구길래 그녀를 비판하겠습니까? 그렇습니까?

저는 그녀의 질문이 피상적인 관심 이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줄리는 하나님과 그녀의 사이에 대하여 제가 어떻게 여기는지 진심으로 알고 싶어 했습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는지 알고 싶으십니까? 저는 그녀에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줄리야, 너 만이 아니야... 모든 사람은 나빠, 나도 나쁘고.”

지금 화가 나서 이 책을 쓰레기통에 던져버리시기 전에, 제 말을 조금만 더 들어보십시오.

그녀의 처음 반응은 “야, 나한테 설교하지 마. 나는 네가 진짜로 뭐라고 생각하는지 알고싶어...” 였습니다.

저는 정말 진심으로 말했습니다. “줄리야, 우리는 모두 나빠. 나도 나쁘고, 너도 나쁘고, 아무도 완벽한 사람은 없어!”

이제 여러분, 당신은 스스로가 “그렇게 나쁘다” 거나, “진짜로 나쁘다” 고 여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저도 그렇듯이 당신 또한 자신이 완벽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남겨진 결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불완전함을 어떻게 보시며, 우리는 그분의 시각에서 어떤 위치에 놓일까요? 영원한 삶과 우리가 죽은 후 어디로 가는지에 비취 봤을 때, 우리의 “불완전함” 은 어떤 결과를 가져올까요?

무거운 질문들이지만, 성경은 이 모두를 매우 분명하게 답변하고 있습니다. 그 메시지는 감춰졌다기 보다는,

사람들의 종교적인 견해에 끼워 맞추기 위하여 무시되거나 다시 쓰여졌습니다. 당신이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바와 같이 성경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면, 이 모든 것의 앞뒤가 맞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계십니까? 우리는 정말 모두 나쁜 것일까요? 어쩌면 이 책을 읽으면서 당신의 마음은 이미 방어 태세에 돌입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잊지 마십시오. 좋은 소식은 아직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기 방어 장치를 내려놓고 열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꺼이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이것이 그분께서 저와 당신, 그리고 나머지 인류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바입니다.

로마서 3:23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라고 말씀하시고, 바로 몇 구절 전에서는 “의로운 자는 없나니 단 한 사람도 없으며” (로마서 3:10)라고 말씀하십니다. 간단히 말해서,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광, 혹은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에 이르지 못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보다는 낫다고 주장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완벽함에 턱도 없이 모자라기 때문에 서로간의 하찮은 비교는 무의미해집니다.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달까지 뛰어 오르라고 명령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이 저보다 더 높이 뿔 수 있을지도 모르고, 저는 제 다섯 살 난 딸아이보다는 더 높이 뿔 수 있겠지만, 결국 우리 모두는 목표에 훨씬 못 미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서 의미하시는 바입니다. 우리 모두는 너무도 턱없이 모자라기에, 당신의 선함과 다른 사람의 선함 (혹은 악함) 사이의 미미한 차이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간단히 말해, 하나님께서는 인류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는 문제가 있다. 너희는 죄를 짓는다. 너희는 불완전하다. 너희는 내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너희는 죄악에 속해있다.”

우리는 다음 장에서 왜 이것이 그렇게 문제가 되는지 알아낼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먼저 문제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자발적으로 인정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이 일은 정말 큰 장애물입니다.

“나는 정말 나쁜 사람이 아니야” 라고 우리는 변명합니다. 우리는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나쁘지는 않을 수도 있겠으나,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른 사람과

비교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우리의 기준보다 훨씬 더 높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완벽함, 자신의 영광을 기준으로써 사용하십니다. 우리가 자신이 얼마나 좋다고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의 기준과 비교해 보았을 때 우리 모두는 꽤 나쁩니다.

만약 10피트짜리 농구 골대가 기준이고, 당신이 그것을 만질 수 있을 만큼 높이 뛸 수 있다면, 당신은 점프를 잘 하는 사람일 것입니다. 하지만 만약 기준이 달인데 당신이 단 10피트만 뛸 수 있다면, 당신은 점프에 전혀 소질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도대체 누가 달까지 뛸 수 있는데요?” “불가능해요!” 라고 말할지도 모릅니다.

맞습니다!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당신이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가능한 기준을 요구하신다고 말하는 겁니까?” 라고 생각하는 것이 상스럽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자신의 말씀에 따르면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완벽한 기준을 요구하십니다.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완벽한 기준에 이르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아시면서도 그 기준을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일까요?

결론은 단 한가지 입니다. DO가 아닌 DONE에 관한 문제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도록 도와주시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충분히 높이 떨어 수 있는가에 관한 것이 아닌, 우리가 충분히 높이 떨어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고, 우리를 충분히 높이 들어올려 줄 우리 자신들보다 더 강한 다른 이를 믿는 믿음에 관한 것입니다!

말 그대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달 까지 뛰어 올라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셨다고 상상해 봅시다. 시도하시겠습니까? 절망하거나, 혹은 기적을 바라시겠습니까? 한가지 확실한 것은, 당신 스스로는 그곳에까지 다다를 수 없다고, 즉시 결론 지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선을 행하고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땅 위에 하나도 없느니라.”(전도서 7:20)라고 말씀하실 때, 성경이 가리키는 바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죄들이 우리를 그분으로부터 멀리 떼어 놓았기에, 우리의 선한 행위조차도 그분의 눈앞에서는 무의미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부정한 물건 같아서 우리의 모든 의는 더러운 누더기 같으며 우리는 다 잎사귀 같이 시들므로 우리의 불법들이 바람 같이 우리를 몰아 가나이다” (이사야서 64:6). 하나님께

서는 우리 스스로는 그분께 다다르지 못한다는 결론을 받아들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 사이에 엄청난 거리, 즉 우리의 불완전함으로 인하여 만들어진 거리가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결론지었듯이, 선한 것들을 행함으로서 이 거리를 좁히지 못합니다. 비자 카드를 더 이상 쓰지 않는다고 해서 그전에 있던 카드 빚을 갚을 수 없는 것처럼, 좋은 일들을 하는 것이 결코 우리의 과거 죄나, 나쁜 일들을 지우거나 없앨 수 없습니다. 선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악함을 무효화하지도 못하거니와 어떤 식으로도 우리가 지은 죄를 취소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류를 향하여 말씀하시기를, “나와 너희의 관계에 대하여 말하자면, 우리는 나누어져 있다. 너희는 자신들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죄의 성품을 갖고 있는데다가, 처음부터 그렇게 태어났다”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가 말 그대로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다고 시편 51:5에서 말씀하십니다. “보소서, 내가 불법 가운데서 형성되었으며 내 어머니가 죄 가운데서 나를 수태하였나이다.” 다른 말로 하면, 당신이 어머니 뱃속에 수태되는 그 순간부터, 당신의 영적인 유전자 안에는 죄의 성품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능 장애나 행

동 장애가 아닙니다. 이것은 행함[doing]의 문제가 아닌 본성[being]의 문제입니다.

저는 세 자녀를 얻는 축복을 받았습니다. 믿기 어려울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제 아이들 중 누구에게도 죄를 지으라고 의도적으로 가르친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견고 말할 수 있기도 전에 이미 이기적으로 행동할 줄 알고 있었습니다.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아이들은 불순종하고, 나쁜 태도를 보이며, 짜증을 부릴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몇 년이 채 지나지 않아 제 아이들은 거짓말하고, 싸우고, 다투고, 심지어는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줄 줄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죄를 짓도록 가르치지 않았다면, 이 모든 것이 대체 어디로부터 온 것일까요?

그 답은 로마서 5:12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였느니라.” 간단히 말해서, 지구상의 모든 남녀노소와 마찬가지로, 죄는 그 아이들의 안에 있는 것입니다. 죄는 우리 안에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영적인 혈통 속에 죄를 지니고 있습니다. 요람에서부터 우리 모두는 잘못을 저지를 수 있는 자연

적인 성향을 갖고 있어 왔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이것이 단순히 ‘잘못하는 것’ 이상의 것이라는 사실을 이해해야 합니다. 만약 이것이 행실에 관한 문제였다면 선한 행실을 통해 고쳐질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한 행실로는 이것을 고칠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상태의 문제입니다. 죄는 마치 치명적인 질병처럼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것은 말 그대로, 첫 번째 남자와 여자, 즉 아담과 이브가 죄를 짓기로 선택했을 때로부터 물려받아 온 우리의 영적인 선천적 결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당신이 좋든지 싫든지 간에, 당신은 영적인 결함을 가진 채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불완전하게 만들고 그분으로부터 분리시키는 심각한 영적인 선천적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1).

나중에 이 구절로 돌아올테지만, 구절의 마지막 부분을 보십시오. “우리는 우리의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었습니다.” 죽음이라는 단어가 문자적으로는 “분리”를 뜻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저와 당신은 분

래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습니다. 즉 우리의 죄성으로 인하여 하나님에 대하여 무감각해져 있습니다.

저는 통속 심리학이 당신에 대하여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르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듣기 싫은 말일테지만, 당신은 자신이 불완전하다는 사실도 부정하십니까? 당신이 부족하며, 영적인 선천적 결함으로 인해 당신과 당신의 창조주 사이가 크게 분리되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실 수 있습니까?

이것은 꽤 나쁜 소식처럼 들리지만, 때때로 당신은 좋은 소식을 적용하기 전에 나쁜 소식부터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치료 가능한 암에 걸렸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의사가 좋은 소식을 전할 수 있도록 먼저 나쁜 소식을 알고자 원하지 않겠습니까? “당신은 암에 걸렸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치유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는 말을 듣고 싶지 않겠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치유법을 이해할 수 있기 전에, 당신은 먼저 진단을 받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진단은 간단합니다. “너는 영적인 결함을 가지고 태어났고, 나의 완벽한 기준을 지킬 능력이 없다. 너를 나에게로 다시 돌

아오게 하기 위해서는 뭔가 초자연적인 일이 일어나야만 한다.”

어째서 이 선천적 결함이 그렇게까지 심각한 문제입니까? 어째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불완전함을 그냥 눈감고 넘어가 주시지 않으십니까?

좋은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대답을 알아보시다…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유일한 지불 방식

저는 크리스마스 쇼핑이나 가족 여행, 혹은 제가 원하거나 필요한 것을 사는 등 아주 특별한 경우에만 드물게 사용하는 디스커버 카드를 하나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앞 뒤 가리지 않고 무모하게 \$5,000 상당의 물건들을 크레딧 카드로 샀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한 달 후에 지출 내역과 금액이 상세히 기록된 대금 청구서가 제 우편함에 도착합니다. 제가 그 빚을 갚는 대신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서 저는 그렇게 지출을 할 생각이 없었고, 일이 그렇게 된 것을 정말로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다고 설명하는 것을 상상

해 봅시다. 그렇다고 제 빛이 갚아지겠습니까? 물론 아닙니다. (만약 그랬다면 좋겠지요?)

좋습니다. 우리 이 일을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봅시다. 만약 제가 고객 서비스에 전화를 걸어서 제가 진 빛에 대해 눈감아 달라고 애원하고 싹싹 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렇게 한다면 분명 해결될 것입니다. 그렇죠?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니, 그렇다면 이 디스커버 카드 직원들은 정말로 융통성 없는 형식주의자들이 아닙니까? 분명히 그들은 좀 더 자비롭고 관대해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로 공평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의 이런 생각은 뻔히 잘못된 것입니다. 디스커버 카드의 직원들이 무자비하거나 참을성 없거나 불친절한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제가 쓴 돈에 대해 정당한 지불을 요구하는 것은 공정하고 올바른 것입니다.

저는 “저기요, 저는 매일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하나님께 저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합니다” 라고 저에게 말하는 많은 사람들과 대화해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저는 신부님이나 하나님께 저의 죄를 규칙적으로 고백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선한 일을 함으로써 저의 죄값을 치릅니다”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디스커버 카드가 단지 제가 부탁했다는 이유만으로 저의 빚을 임의로 청산해 주지 않는 것 만큼이나, 하나님께서도 “죄를 용서” 하시거나 “죄의 대가를 청산” 하지 않으십니다.

디스커버 카드사는 이미 지불 방식을 정해놓았습니다. 그 지불 방식 이외에는 아무것도 제 빚을 청산해 주지 않습니다. 이것은 불공평하거나 부당한 것이 아닙니다. 그와 반대로, 이는 오히려 이치에 맞습니다. 이는 공평하고 옳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사과 편지나, 추수감사절 음식 바꾸거나, 심지어는 월마트 상품권도 보낼 수 없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단 한가지 방식으로 지불액을 보내야 합니다. 돈. 그것이 디스커버 카드사의 정해진 방침이며 관행입니다.

거의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도 죄값의 지불 방식을 이미 정해 놓으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죄값은 치러져야만 합니다. 왜냐고요?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고 선하시기 때문입니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이나 영원에서나 결코 죄와 같이 끔찍한 것이 만연하도록 놔두시지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선하신 하나님께서는 죄를 최종적으로 심판하셔서 우리가 궁극적으로 죄로부터 영원히 자유로울 수 있

도록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분께서 죄와 같이 파괴적인 것에 맞서 행동하시도록 요구합니다.

그래서, 당신이나 제가 태어나기 훨씬 전, 세상이 창조되기도 훨씬 전에 하나님께서는 형벌, 즉 죄의 대가를 정하셨습니다. 여기에는 협상의 여지가 없습니다. 이 형벌은 정당하고 공평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죄의 가진 권능과 파멸에 비추어 봤을 때 선하기까지 합니다. 이 형벌이란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로마서 6:23에서, “죄의 값은 사망이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망.

비싼 대가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아주 불쾌하게 들린다고요? 글썄요. 다시 한번 봅시다.

선하신 하나님께서 어째서 죄가 살아 있도록 놔두시겠습니까? 그것은 여기 미국의 법무기관이 살인과 폭력을 용납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나쁠 것입니다. 만약 이곳의 법무기관이 그러한 극악무도함을 용납한다면, 더 이상 좋은 기관이 아닐 것입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죄와 악을 영원토록 용납하신다면, 그분은 좋으신 하나님이 아닐 것입니다.

아니, 그분의 선하심은 그분께서 행동을 취하실 것을 요구합니다. 그분의 정의는 대가를 요구합니다. 당신과

제가 나타나기 훨씬 전, 하나님께서는 죄의 대가가 단 하나 뿐이라고 정하셨습니다. 죄와 같이 치명적이고 파괴적인 것에는 단 하나의 용납되는 해결책이 있습니다.

죽음.

죄는 죽어야만 합니다. 사망 또한 죽어야만 합니다. 너무나도 악하고 파괴적인 이들은 단 하나의 의로운 결말과 대면해야 합니다. 유일하게 용납될 수 있는 하나의 결과 즉, 최후의 감옥에 가둬져야만 합니다. 죄라는 것은 너무나도 나쁘기에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으로 “죄는 죽어야만 한다”고 결정하셨습니다.

당신에게는 이 사형 선고를 통하여 나타난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보입니까? 그분께서는 우리를 영원토록 괴롭힐 해로운 것들을 용납하시길 거부하십니다. 그분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십니다. 그분의 선하심은 너무나도 선합니다. 그분께서는 죄가 세상을 계속해서 파괴하는 것을 용납하실 수 없습니다.

살인범이 당신의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이 살인범은 피해자가 누가 되었던 닥치는 대로 죽입니다. 그는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아무런 경고도 없이 가차없이 죽여댑니다.

당신이 그 살인범이 누군지 알아내서 경찰에 전화한 순간, 그들도 이미 살인범의 정체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상상해 봅시다. 경찰은 그 살인범이 살인을 계속하도록 놔두기로 결정했습니다. 아무런 형벌 없이. 아무런 심문 없이. 아무런 재판 없이. 경찰 수사 당국은 당신에게 말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그냥 좋게 넘기기로 했습니다. 사랑의 경찰서는 절대 아무도 감옥으로 보내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격분할 것입니다! 당신은 반드시 이 자가 법의 심판을 받고, 당신의 동네에 평화가 다시 찾아올 수 있도록 어떤 일이라도 하였을 것입니다!

당신은 누군가가, “글쎄 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었다고는 도무지 믿을 수 없습니다” 라던지, “저는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를 심판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을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삶 가운데 존재하는 모든 끔찍한 것들에 대하여 아무것도 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죄가 자유롭도록 놔두시고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않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없습니다. 그분께서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에 대한 최후의 심판을 하실 것이라고 매우 분명하게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는 최종적인 죄의 대가를 요구하실 것이고, 단 한가지 방식, 즉 죽음을 통해서만 죄의 대가를 받으십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는 죄와 사망의 최종적인 감옥인 마지막 무덤을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이것은 “불 호수” 라고 불립니다. 요한계시록 20:14에서 이 최후의 심판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 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여러분, 이것은 비열하거나, 불의하거나, 불공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와 사망을 영원한 무덤으로 보내시겠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이제, 여기부터가 우리가 받아들이기 힘들어하는 부분입니다. 다시 상기시켜 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사람의 의견”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해놓으신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분의 조건을 알고자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25:41에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위하여 지옥을 만드신 것이 아님을 분명히 밝히고 있습니다. 지옥은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되었습니다. “그 때에 그가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하나님께서 본래 의도하신 바는 마귀와 죄에 대한 마지막 심판이 지난 후, 사람들을 그분과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맞아들이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사랑하시는 마음과 선하신 본질로부터 생성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완전하십니다. 완전하게 사랑하시고, 완전하게 선하십니다. 그러나 또한 완전하게 의로우십니다.

하나님의 사법 제도가 죄 값의 지불로 죽음을 요구하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태어난 저는 영적인 핏줄 속에 흐르는 죄로 인하여 지금 아주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습니다.

죄인으로서, 저는 치러야 할 죄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의 죄를 위한 최소한의 값이 있는데, 이것은 죄의 대가를 요구하는 하나님의 정의 안에서의 한 법입니다. 죄는 지금 저와 하나님 사이에 서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지만, 죄는 미워하십니다. 만약 그분께서 죄를 미워하지 않는다면, 그분은 저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당신의 사랑하는 가족 중 누군가가 암에 걸렸을 때와 같습니다. 당신은 가족과 암을 동시에 사랑할 수 없습니다. 만약 당신이 당신의 가

죽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암을 미워하고, 가능하다면 그것을 제거해 버리길 원할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암을 사랑한다면, 당신은 당신의 가족에게 스스로를 원수로 만들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육신적인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복종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참으로 그리할 수도 없으므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니라” (로마서 8:7)라고 말할 때 뜻하는 바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에 대하여 편하고 안락하게 느끼든지 아니든지, 그분께서 비록 당신을 아주 많이 사랑하실지라도, 당신의 죄가 당신을 그분의 적으로 만듭니다. 참으로 받아들이기 어렵고 아픈 말입니다. 어쩌면 삼키기엔 쓴 약일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입니다.

제가 저의 방법으로나 선한 일들을 함으로써 하나님께 인정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조금도 놀랍지 않습니다. 죄는 거대한 헝곡처럼 저를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모든 것으로부터 가로막고 서 있습니다.

간단히 말하자면, 저의 죄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저를 정죄합니다.

그러나,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이것은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지 않는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 점은 잠시

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만약 무언가 기
적적인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면—만약 하나님께서 개입
하실 방법을 찾지 않으신다면—저는 이제 끝났다는 말
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실지라도, 그분께서는 죄가
천국 안으로 들어오도록 허락하실 수 없습니다. 하나님
께서는 죄가 살아있도록 놔두실 수 없고, 제가 제 안에
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는 죽음으로 낙인 찍어졌습
니다. 하나님께서는 단 1초라도 제가 그분으로부터 떨어
져 지옥에서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의도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만약 기적이 일어
나지 않는다면 이런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저의 죄값은 치러져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법입니다. 저의 죄는 죽어야만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의 선하심입니다. 이것은 “암은 치료되어야만 합니다” 라
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 치유법이 무엇이냐고요? 글
쎄요, 우리는 선하게 사는 것이 그 답이 아니라는 사실
을 알고 있습니다. 제가 얼마나 선하고, 종교적이든 간에,
저는 여전히 죄를 제 안에 가지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행동[behavior]의 문제가 아니라, 본성[being]
의 문제입니다. 선한 삶으로는 죄값을 치르지 못합니다.

단 한가지 방법만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있습니다. 바로 ‘죽음’입니다.

그렇게 끔찍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선 죽음만이 우리가 할 수 있는 단 한가지 선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만약 저의 이름 아래 기록된 죄목과 함께 하나님 앞에 선다면—만약 죄인으로서 그분을 마주한다면—그분의 말씀에 의해 제게는 단 하나의 종착점이 있을 뿐입니다.

바다가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내주고 또 사망과 지옥도 자기 속에 있던 죽은 자들을 넘겨주매 그들이 각각 자기 행위들에 따라 심판을 받았고 사망과 지옥도 불 호수에 던져졌더라. 이것은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0:13-14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과 가증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을 일삼는 자들과 마법사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호수에서 자기 몫을 받으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요한계시록 21:8

그렇습니다. 이 불 호수는 (성경에 의하면) 실제 존재하는 곳이고, 무시무시한 곳이며, 사람들은 그들의 죄들로 인하여 그 곳에 가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바람이 아닙니다.

이 불 호수는 하나님께서 당신이 가기를 원하시는 곳이 아니라, 죄의 최종적인 무덤입니다. 기적이 아니라면 죄를 짓는 사람들은 모두 그 곳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살려두기에는 너무나 선하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께서는 둘째 사망을 두번 언급하십니다. 다른 말로 하면, 우리 모두는 한 번 죽고, 그 후에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것인지, 아니면 두 번째로 죽을 것인지 심판 받는다는 것입니다. 둘째 사망은 불 호수 안에서의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입니다. 이것은 최종적이며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곳에서 영원을 보내기를 원하지 않으시지만, 이것만이 죄값을 치를 유일한 대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로마서 5:18에서 “정죄에 이른 것”이라고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

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같이….”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정죄 받은 채 서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유죄입니다. “그러므로…, 네가 누구이든 변명할 수 없나니…” (로마서 2:1). 우리는 말 그대로 변명할 수 없습니다. 우리의 죄값은 치러져야만 합니다. 여기에는 ‘만약’ 도, ‘그리고’ 도, ‘하지만’ 도 없습니다. 죄는 죽어야만 합니다.

하나님께서 선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의로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모든 나쁜 것을 죽음 가운데 두셔야만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저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제가 이러한 저주와 마주하길 원하지 않습니다. 제가 죄 가운데서 태어났기 때문에, 저는 제가 얼마나 선했는가에 상관 없이 정죄 받은 사람입니다.

우리는 아주 심각한 곤경에 처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죄에 대한 최저 임금법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둘째 사망은 존재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이상, 저와 당신은 그 둘째 사망을 마주할 것입니다.

우리는 달 까지 뛰어오를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벽한 기준을 지킬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우리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졌고, 단 하나의 지불 방식만이 허락됩니다.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바꿀 매우 중요한 세 글자 단어가 있습니다...그러나[BUT]...

로마서 6:23

“죄의 삯은 사망이다. 그러나...”⁴

기적은 일어났습니다...

4 “For the wages of sin is death, but...”
한글 성경에서는 but이 문법 관계상 생략 되었습니다. —역주

대리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만약 제가 디스커버 카드 회사의 고객 서비스에 계속 전화로 제 카드 빚에 대한 양해를 구하거나, 혹은 빚을 갚는 대신 계속 음식 바구니와 선물들을 카드 회사에 보낸다고 했을 때 그들의 반응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들의 최후 통첩은 대강 이와 같을 것입니다. “그만하시죠. 빚을 갚던가, 아니면 대신 갚아 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 보십시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빚을 갚을 수 있는 다른 누군가를 찾아라. 괜찮은 생각이죠? 제게 돈을 빌려주거나 아예 줄 사람을 찾는다는... 결국에 카드 회사는 누가 되었

던 빛만 갇히면 그만인 것입니다. 하지만 이 빛은 제 조건이 아닌 그들의 조건에 맞게 갇혀야만 합니다.

애석하게도 세상은 자신들의 죄값을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그들 자신의 방법대로 치르고자 하는 매우 성실한 사람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이러한 발상은 결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사실, 이것을 행한 첫 번째 사람은 가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성경의 첫 번째 책인 창세기에서, 가인은 하나님께 죄에 대한 값으로 헌물을 가져왔습니다. 하지만 가인은 자신의 방법대로 하였습니다. 그는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값을 치르기를 거부하였고, 따라서 그의 헌물 역시 하나님에 의해 거부되었습니다(창세기 4:1-7). 하나님께서는 근본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죄값은 나의 조건에 맞게 갇혀야 한다… 네 방법이 아니다.”

이상하게도 가인은 자신의 헌물을 거부하신 하나님께 매우 화를 냈지만, 이것은 그 자신의 선택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교만에 가로막힌 것입니다. 어쩌면 당신은 여태껏 이 책을 읽으며, 이 책의 내용에 대해 자기 정당화나 자기 방어로써 대응하고 싶은 유혹을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당신은 당신의 선함조차도 하나님 앞에서는 도리가 없다는 사실에 기분이 상하였는지도 모릅니다. 저는

당신이 그런 교만을 내려놓고, 그것이 하나님께서 내려 주신 기적과 당신 사이에 장애물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만이란 죄가 이기도록 하는 어리석은 원인입니다!

불행히도 죄의 마지막 심판대에서는 “하나님을 위하여” 좋은 일들을 많이 하고도 여전히 치러지지 않은 죄 값을 가지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위한 그들의 행위[DOING]로는 충분치 않을 것입니다.

마태복음 7:21-23에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들 자신의 방법대로 죄값을 해결하려는 사람들에게 단호히 경고하십니다. “내게,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다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오직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을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다시 말하자면,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오로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그 날에 많은 사람들이 내게 이르기를,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대언하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마귀들을 내쫓지 아니하였나이까? 주의 이름으로 많은 놀라운 일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에 내가 그들에

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라, 하리라.”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위하여 행한 온갖 좋은 일들을 열거하겠지만, 하나님의 최후 한 마디는, “내가 너희를 결코 알지 못하였노라” 일 것입니다. 다시 말하자면, “너는 한 번도 나의 방법대로 내게 오지 않았다. 네 죄값은 미납인 채 남아 있다” 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서 떠나라...” 라고 말씀하실 때, 그것은 둘째 사망, 즉 하나님으로부터의 영원한 분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선하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또한 의로우시고, 거룩하시고, 완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저는 그분 앞에 죄인으로서 서 있습니다. 그분의 크신 마음으로부터 사랑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분의 크신 의로움에 정죄 받은 채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를 받아들이시기 위하여 먼저 저의 죄를 완전히 제거하시고 그 모든 값을 치르셔야 합니다. 일단 빛을 갠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저를 기꺼이 자신의 가족의 일원으로 맞이하여 영원한 관계를 맺으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중 그 어떤 일들도 일어나기 이전에 빛은 갇아져야만 합니다.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정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베드로후서 3:9). 하나님께서는 단 한 사람도 죄에 대한 그분의 심판받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그분으로부터 영원히 분리되어 지옥으로 가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이전 장에서 우리는 “죄의 값은 사망이나...”라는 구절을 보았습니다. 이 구절의 나머지 절반이 바로 좋은 소식이 시작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얻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로마서 6:23).

저 자신은 신용카드 빚을 갚을 수 없지만, 만약 당신이 그렇게 할 수 있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신이 저의 친구이며, 제 앞으로 수표를 써서 그냥 선물로 줄 만큼 저를 사랑했다면 어떨까요? 이것이 가능할까요? 디스커버 카드 회사가 제 돈 대신 당신의 돈을 받아 줄까요? 당연히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대신한다” 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의 돈이 저의 부족함을 대신하는

것입니다. 제가 당신의 선물을 받는 순간, 당신의 돈은 제 계좌에 이체되고 저는 빚을 청산할 수 있을 것입니다!

대신하다. 우리 삶 가운데는 수많은 대용품들이 있습니다. 대용 소금. 대용 설탕. 육류 대용식품 (우웻!). 우리는 대체 교사, 가발, 심지어는 틀니마저도 가지고 있습니다. 대용품이란 대체, 즉 원래 것의 교체이며, 또한 이들은 대부분 원래 것들에 비해 열등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에서 만큼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로 인하여 정죄 받아 하나님 앞에서 유죄라는 것을—죄가 반드시 죽어야 한다는 것을—알고 있다면, 오직 사망만이 유일한 결과라는 사실을 알고 있다면, 그리고 만약 내가 내 자신의 죄값을 치른다면 하나님께로부터 영원히 분리될 것이라는 사실 또한 알고 있다면, 가능한 해답은 단 하나 뿐입니다. 저는 하나님께 이렇게 묻겠습니다.

“대리인을 구할 수 있을까요?”

저를 위하여 이 빚을 갚아 줄 누군가, 혹은 무언가가 있습니까? 저는 이대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면 대리인이 존재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대답은 정말 간단하게도, “그래, 대리인이 있다. 너의 죽음을 네 대신 짊어질 누군가가 있다” 인 것

입니다. “중재가”가 될 수 있는 누군가가—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죄의 빛을 갚고 동시에 당신에게 영원한 생명을 줄 수 있는 누군가가—존재합니다.

만약 누가 당신의 죽음을 대신 하였는지 궁금하다면, 계속 읽어 주십시오. 이 대리인에 대하여 좀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일한 기적의 대리인

일단, 이분이 그냥 평범한 대리인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 두십시오. 저는 당신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당신도 저의 죄값을 치를 수 없습니다. 사실, 우리는 모두 같은 빛을 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에 불과한 우리가 서로 죄값을 갚아 준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같은 죄의 성품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단지 기능적이거나 행동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도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본성의 문제입니다. 내가 무엇을 행하였나 뿐만 아니라, 내가 누구인가와 무엇이 내 안에 있는가 역시 문제인 것입니다.

따라서, 이분은 나의 죄값을 치를 뿐 아니라, 나로부터 죄를 완전히 제거하고 영원히 멸할 기막힌 성질의 기적적인 대리인이어야만 합니다. 이 기적은 죄라는 암세포를 제거하고 새로운 정체성, 즉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는 본성을 내 안에 만들어 낼 영적인 수술을 요구합니다.

나에게는 내 안의 죄인을 의인으로 바꿔 놓을 수 있는 대리인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단번에 죄가 요구하는 죽음을 대신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표면적인 변화 이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나에게는 완전한 영적 재건축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실제로 이것을 “다시 태어남”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에서는 매우 선하고 종교적인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접근합니다. 이 사람은 자신의 삶을 하나님을 위하여 매우 선한 일들을 행[doing]하는데 바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께서서는 그에게 3절에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다시 태어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을 볼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하자면, 당신이 영적으로 완전히 다시 태어나지 않는 이상 - 당신의 영적인 본성을 죄성으로부터 의로움으로 변화시키지 않는 이상 - 당신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요한복음 3:7에서 다시 한번 말씀하십니다. “내가 네게 이르기를, 너희가 반드시 다시 태어나야 하리라, 한 것에 놀라지 말라.” 그 사람은 예수님의 조건에 몹시 놀라며 되물었습니다.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태어날 수 있나이까?” 그러자, 예수님께서서는 “사람이 물에서 나고 성령에게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당신의 (물을 통한) 첫번째 태어남은 육신적이었지만, 당신의 (영을 통한) 두번째 태어남은 영적이어야만 합니다. 이것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당신의 마음 안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대리인. 기적의 대리자. 단지 빛만 갖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히 재건하고 나에게 새로운 영적인 혈통을 줄 종류의 대리인. 이는 죄값을 치르는 것은 물론,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고 빛이 없는 완전히 새로운 정체성을 내게 줄 대리인입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그런 대리인은 누구일까요?

하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아직 힘이 없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정하신 때가 되어 경건치 아니한 자들을 위하여 죽으셨느니라” (로마서 5:6). 또,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로마서 5:8)라고 하셨습니다. 로마서 5:19에서, 하나님께서는 다음과 같이 요약해 말씀하십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로운 자가 되리라.”

예수님께서서는 “나는 선한 목자니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버리거니와”(요한복음 10:11) 라고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6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그들을 위한 처소를 마련하기 위하여 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대화 가운데 그분의 제자들 중 하나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그곳에 가지요?” 라는 뜻의 질문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예수님께는 그에게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이것은 매우 배타적인 발언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말 그대로, “만약 네가 언제든 하나님께로 다가가길 희망한다면, 너는 나를 통해 가야만 한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침례/세례를 통하여, 교회

를 통하여, 신부님을 통하여, 혹은 다른 어떤 방법을 통하여 가야 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내가 유일한 길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만이 우리의 죄에 대한 유일한 대리인이십니다.

많은 종교들이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한 중재자들 혹은 중개인들을 둡니다. 이들은 사람들에게 신부님, 혹은 주교님이라 불리지만 그 기본적인 목적은 스스로는 하나님께 다다르지 못할 당신을 어떤 방법으로든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또다시 하나님께서는 이에 대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과 사람들 사이에 한 중재자가 계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님이시라” (디모데전서 2:5). 다른 말로 하자면, 예수님만이 당신에게 필요한 유일한 중재자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2:9에서, 하나님께서는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다가갈 수 있도록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우리의 죄들을 사하시

며, 우리를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놀라운 기적의 대리인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대리인이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대리인이십니다.

하나님의 대답이요? 그렇습니다. 당신은 대리인을 가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대리인은 단순한 사람이 아닌 그 이상의 존재여야 합니다. 그 유일한 해결책은 하나님께서 직접 사람의 형상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죄 없는 삶을 사시고, 친히 우리를 위하여 죽어 주시는 것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입니다.

만약 이것이 극단적인 주장이라고 생각하신다면 당신은 다음과 같은 점을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첫 번째로, 그분은 반복하여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 한가지 예가 있습니다: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내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요한복음 14:9). 선한 사람이나 선한 선생은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떠들며 돌아다니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은 죽으신 것 뿐만 아니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당신은 세계 도처에서 종교 지도자들과 전 세계적인 종교 시스템들의 창시자들

의 매장지들을 찾을 수 있습니다. 단 하나, 진정한 의미에서 기독교를 제외하고는 말입니다. 당신이 예수님의 무덤을 방문한다면 그 곳은 텅 빈 채로 열려 있을 것입니다.

역사적인 사실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문자적인 부활을 매우 강력하게 뒷받침합니다. 다음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후, 그분의 추종자들은 옛날 직업인 어부의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을 부인하였습니다. 이들의 꿈은 생명을 잃었습니다. 이들은 거짓말 때문에 목숨을 버릴 종류의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불과 며칠 후, 이들로 하여금 고기잡이를 평생 떠나게 할 만큼 큰 변화를 일으킨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들은 또한 자신들이 선포한 메시지로 인하여 끔찍한 죽음을 맞습니다. 그 메시지란 곧 그리스도께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었습니다.

질문 하나만 하겠습니다. 당신은 당신이 거짓말이라고 알고 있는 것을 위하여 죽을 수 있습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들이 한 사람도 남김없이 그들의 메시지를 위하여 죽었다는 사실이야말로 예수님께서 진정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셨다는 주장에 대한 충분한 증거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정복한 유일한 사람이고, 논쟁의 여지

없이 그것을 증명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께서 하나님임을 압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 부터 일어나사…” (고린도전서 15:20).

세 번째로, 우리는 유일한 가능성이 이것 뿐이기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정체에 대한 가능성은 실제로 단 세가지 밖에 없습니다. 육신 안의 하나님, 거짓말쟁이, 혹은 미친 사람. 예수님을 미쳤다고 하기에는 그분이 너무나 지혜로웠고, 그분의 사역은 너무나 힘이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 진실되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분과 그분의 추종자들이 거짓말을 위하여 죽었다고 생각한다는건 어불성설이기에, 그분은 절대로 거짓말쟁이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루신 기적들, 수많은 인생들을 바꿔놓은 3년간의 사역, 그리고 죽음으로부터의 부활은 모두 그분이 육신 안의 하나님이셨다는 사실을 증명합니다.

만약 당신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이라고 믿기를 거부한다면, 당신은 성경책을 내다 버려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한 사실들은 성경의 모든 장마다 실처럼 엮여져 있기 때문입니다! 골로새서 1:15은 그분께서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말씀합니다. 디모테전서 3:16은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논쟁의 여지가 없이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게 되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믿게 되시고, 영광 속으로 올려져서 영접을 받으셨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우리에게 구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예수님께서 이 수십 가지의 성경 예언들을 직접 성취하셨습니다. 이 예언들은 예수님께서 언제, 어디서 태어나실지, 그분의 부모님은 누구일지, 그리고 그분이 어떻게 죽을 것인지 등, 전혀 예측할 수 없는 성질의 것들이었습니다. 모든 예언은 성경이 예견한 그대로 완벽하게 성취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는 대리인을 보내리라고 약속해 오셨고, 그 대리인이 오셨을 때, 그분께서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방법 그대로 오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육신 안의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14). 그분은 단 한가지 이유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것만이 죄라는 무자비한 적으로부터 우리를 구해 낼 유일한 방법이었기 때문입니다. 이 죄라는 적은 우리의 세상에 침입하여서 정죄함에 이르기까지 우리를 포로로 붙들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구하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구조 임무를 수행하시기 위하여 어떤 일들을 겪으셔야 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야기는 더욱 흥미진진해집니다...

완전히 지불된 대가

아마도 당신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겪으신 일을 그린 그림을 보거나 그 장면을 묘사한 것을 들은 적이 있을 것입니다. 십자가형은 그 당시 로마의 권력자들이 만들어낸 가장 끔찍하고도 고통스러운 죽음의 형벌이었습니다. 이 형벌은 가장 긴 시간 동안 가장 큰 고통을 가할 수 있도록 아주 잘 훈련된 로마 위병들에 의해서 행해졌습니다. 이것은 더디고 잔인한 처형 방법이었을 뿐 아니라, 가장 굴욕적인 공개 처형이었습니다. 그 고통이 어쩌나 심한지 우리는 그를 설명하기 위하여 “극심한 고통” 이

라는 뜻의 *excruciating* (라틴어: *crux*—십자가, 십자가형)이라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냈습니다.

예수님의 경우, 사람들은 먼저 모의재판을 열어 그분을 주먹으로 때리고 침을 뱉었습니다. 이 때 그분의 수염은 얼굴로부터 거칠게 잡아 뜯겨졌고, 그분의 머리에는 긴 가시로 만든 관이 씌워졌습니다. 이 가시들은 그분의 두개골까지 살갓을 깊숙히 파고들어 극심한 고통과 출혈을 야기하였을 것입니다.

이런 잔혹한 매질 후, 예수님께서는 “아홉꼬리 고양이”라 불리우던 고문 도구로 39번이나 채찍질 당하도록 선고 받으셨습니다. 이 가죽 채찍의 끝에는 아홉 개의 가죽 끈이 달려 있었고, 각각의 끈에는 날카로운 금속, 뼈, 혹은 돌맹이 조각들이 끼워져 있어서 채찍질을 함과 동시에 살점이 베어지고 뜯겨나갔습니다. 잘 훈련된 위병들은 이 채찍을 사용하여 인간의 육체를 죽지 않을 만큼만 훼손시키는 일에 아주 능숙하였습니다. 이것은 아주 끔찍한 고문 방법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께서는 이제 간신히 숨만 붙은 채로 강제로 큰 나무 십자가를 지고 야유하는 군중 사이를 지나 갈보리라고 불리우는 언덕까지 가서야만 했습

니다. 언덕 위에 다다르자, 그분은 십자가 위에 눕혀지고 손과 발에 못이 박혀 매달린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 사건이 실제로 일어나기 훨씬 전에 이사야서 53장에서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예언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당신 개인을 위하여 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음을 알아두십시오.

그는 사람들에게 멸시를 당하고 거부되었으며 슬픔의 사람이요, 고통을 잘 아는 자라. 우리는 그를 피하려는 것 같이 우리의 얼굴을 감추었으며 그는 멸시를 당하였고 우리는 그를 귀히 여기지 아니하였도다. 참으로 그는 우리의 고통을 짊어지고 우리의 슬픔을 담당하였거늘 우리는 그가 매를 맞고 하나님께 맞아 고난을 당한다고 생각하였노라. 그러나 그는 우리의 범죄들로 인해 부상을 당하고 우리의 불법들로 인해 상하였노라. 그가 징벌을 받음으로 우리가 화평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고침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길을 잃고 각각 자기 길로 갔거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불법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그가 학대를 당하고 고난을 당하였어도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도살장으로 향하는 어린 양같이, 끌려가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자기 입을 열지 아니하는도다. 그는 감옥에도 가지 못하고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밝히 드러내리요? 그는 산 자들의 땅에서 끊어졌으며 내 백성의 범죄로 인하여 매를 맞았도다. 그가 사악한 자들과 더불어 자기 무덤을 만들었으며 죽어서는 부자와 함께 하였으니 이는 그가 폭력을 행사하지 아니하였고 그의 입에 속임수가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주께서 그를 상하게 하는 것을 기뻐하사 그에게 고통을 두셨은즉 주께서 그의 혼을 죄로 인한 헌물로 삼으실 때에 그가 자기 씨를 보고 자기 날들을 길게 하며 또 주의 기뻐하시는 일이 그의 손에서 번영하리이다.
—이사야서 53:3-10

지금 잠깐 시간을 들여 이 성경 말씀을 다시 읽어 보시겠습니까? 하나님께 당신을 향한 메시지를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부탁드립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내어주신 바로 그 때, 그분께서 무엇을 하신 것인지 정확하게 보여 줍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의 범죄함(죄)을 대신하여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고, 그 자신을 희생물(대가)로 만드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십자가 위에서 여러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중 아마 가장 중요한 말씀은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30).

Done.

무슨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까? “다 이루었다” 라는 말씀이 도대체 무슨 뜻입니까?

문자적으로 이것은 “완전히 치러진 값” 이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당신이 언제고 지을 모든 죄의 값이 이제는 완전하고 최종적인 대가로 모두 갚아졌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당신의 죄 전부를 포함합니다. 과거, 현재, 미래, 그리고 당신이 아직 짓지 않은 죄들마저도!

예수님께서서는 하나님의 기적적인 간섭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죄의 권능과 그것이 가져오는 정죄함으로

부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신성한 임무에 임하신 하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기적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신 후, 한 로마 병사는 그분의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습니다. 그분의 죽음을 증명하고, 다시 한번 특정한 예언을 성취하며 그분이 바로 예언된 분이라는 것을 증명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빌린 무덤 안에 묻히셨고, 삼일 후, 말 그대로 죽음을 이기고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분은 40일의 기간동안 수백명의 사람들에게 모습을 드러내셨습니다. 성경은 사도행전 1:3에서, “그분께서 수난을 받으신 뒤에 또한 자신이 살아 계심을 절대 확실한 많은 증거들로 그들에게 보여주시고 사십 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왕국에 관한 것들을 말씀하시고” 라고 말씀합니다.

보셨습니까? 절대 확실한 증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단순한 신화, 전설, 혹은 거짓말이 아닙니다. 이는 절대로 확실하게 증명된 사실입니다.

이것이 당신에게 의미하는 바는 무엇일까요?

첫째, 예수님께서서는 죽으심으로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었다” 라고 말씀하셨을

때 이루신 그 일로 인하여 당신의 빛은 진정으로 갹아지고 용서되어질 수 있습니다! 값은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Done!

둘째, 예수님의 부활은 새롭게 태어남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이야기했던 “완전한 영적 재건축”을 기억하십니까?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을 완전히 정복하심으로써 당신의 죄값을 치르셨을 뿐만 아니라, 당신에게 아주 새로운 종류의 삶—완전히 새로운 영적 정체성—을 제공하셨습니다. 이 기적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에 완전해질 수 있습니다! 당신은 영적인 유전자 체계—하나님에 대한 당신의 정체성—의 완전한 재설계를 받을 수 있으며 이는 당신을 하나님의 눈앞에서 새로운 창조물로 만듭니다. 당신은 더이상 죄 있는 창조물로 남아있을 필요가 없으며 죄의 빛이 없는 새로운 창조물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DONE입니다. 이것이 바로 “다 이루었다”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성경은 이 “완전히 치러진 값”이란 개념을 표현하기 위하여 정말 훌륭한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무언가를 위해 치러진 완전한 값”을 뜻하는 화해 헌물

[propitiation] 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가 사용되어진 말씀은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을 하나님께서 그분의 피를 믿는 믿음을 통한 화해 헌물로 제시하셨으니 이것은 하나님께서 참으심을 통해 과거의 죄들을 사면하십시오으로써 자신의 의를 밝히 드러내려 하심이요.
—로마서 3:25

그분은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니 우리의 죄들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이시라.—요한일서 2:2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아니하였으나 그분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자신의 아들을 보내사 우리의 죄들로 인한 화해 헌물로 삼으셨나니 여기에 사랑이 있느니라.—요한일서 4:10

성경은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화해[reconciliation]”라고 부릅니다. 마치 당신이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서 불화가 있을 때 “화해” 하는 것처럼, 예수님께서서는 우리와 하나님 사이를 화해시키셨습니다. 그분은 고린도후서 5:18-19

에서 말씀하십니다. “또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났으며 그분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를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고 또 화해하게 하는 사역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범법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해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맡기셨느니라.”

예수님께서서는 또 21절에서, “하나님께서 죄를 알지 못한 그분을 우리를 위하여 죄가 되게 하신 것은 우리가 그분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죄” 가 되게 하심으로써 우리가 “의롭게” 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이 얼마나 굉장한 선물입니까! 어떻게 이 사랑을 형용할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대리인이셨고 그분께서 우리의 빛을 전부 다 갚아주셨다는 사실을 상세히 설명하는 구절들로 가득합니다. 잠시동안 이 구절들 속에 있는 그분의 메시지를 당신이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하나님께 부탁해 보십시오.

그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
에 따라 이 악한 현 세상에서 우리를 건지시

려고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자신을 주셨으니
—갈라디아서 1:4

친히 나무에 달려 자신의 몸으로 우리
의 죄들을 지셨으니 이것은 죄들에 대하여 죽
은 우리가 살아서 의에 이르게 하려 하심이
라. 그분께서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고침을
받았나니—베드로전서 2:24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
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로서 불의한 자를 대
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
임을 당하셨으되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
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베드로전서 3:18

그러나 그분께서 빛 가운데 계신 것같이
만일 우리가 빛 가운데서 걸으면 우리가 서
로 교제하고 또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모든 죄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요한일서 1:7

또 신실한 증인이시요 죽은 자들 중에서
 처음 나신 분이요 땅의 왕들의 통치자이신 예
 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
 을지어다.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의
 죄들로부터 우리를 씻으시고—요한계시록 1:5

저는 이 장을 한가지 결론적인 생각으로 마무리 짓
 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서 당신의 죄를 위하여 치르신 값
 은 부분적이지 않습니다. 이 값은 완전한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완전한 값”의 개념을 이해하는데 몹시 어
 려움을 겪는 듯 보이던 한 남자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
 습니다. 그를 이해시키기 위한 몇 시간의 노력 끝에, 마침
 내 그의 머리에 환하게 불이 들어오는 듯이 보였습니다.

그는 미소지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는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예수님께서서 저의 죄값을 치르셨다는 사실을
 이해는 했지만, 이것이 상호적이라고 믿어왔습니다. 반반
 씩 분담해서 말이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서는 그분이
 하실 역할을 하셨지만 저도 여전히 제 역할을 해야 한다
 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만일 제가 당신이 말하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다면, 예수님께서서 전부 다 하셨고, 저

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이 100%, 저는 0%로군요!”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은 50대 50으로 분담할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 죄값의 일부만 치르시고 나머지는 당신이 하도록 놔두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거의 다 이루었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분은 “부분적인 값은 치러졌다”고 말씀하지도 않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서는 “값은 완전히 치러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종교들마저도 예수님께서서는 우리 죄의 일부만을 위하여 값을 치르셨다고 가르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당신에게 속죄를 위하여 여전히 많은 것을 행해야만[DO] 한다고 가르칩니다. 마치 예수님께서서는 부분적인 값만을 치르시고 당신이 나머지를 책임져야 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간단히 말해 이것은 성경의 메시지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값을 치르셨습니다! DONE.

여러분, 이해하겠습니까? 당신은 자신의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됩니다. 신성한 하나님의 간섭하심이라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당신 몫의 형벌을 가져가셨습니다.—그 전부를!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이 놀라운 값이 실제로 저의 계좌에 적용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예수님의 죽음이 저에게 적용될 수 있을까요?

자, 한가지는 우리가 확실히 결론지었습니다. 이것은 행함[DOING]을 수반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은 결정함[*deciding*]을 수반할 것입니다.

이것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겠습니까?

이보다 더 좋을 수 있을까요?

가장 위대한 선물

저희 집에서 크리스마스는 굉장히 기대되는 행사입니다! 아마도 당신과 마찬가지로, 우리 가족은 그날을 위해 수개월 동안 저축하고 계획합니다. 그보다도 훨씬 전에, 아이들은 벌써부터 자기들이 갖고 싶은 것들의 목록을 작성합니다. 자기들의 크리스마스 선물로써 요구할 것들을 말입니다. 농담이 아니라 저희 아이들은 대략 8월 즈음부터 저희에게 그것들에 대해 귀뜸하기 시작합니다. 와우~, 크리스마스가 오기 전 몇 달간 이 아이들의 상상력이 얼마나 풍부해지며 목록은 또 얼마나 지속적으로 늘어나는지!

올해 제 아들은 기타, 2단 침대, 자전거, 그리고 최신 음악 플레이어를 원합니다! 게다가 이것은 짧은 목록에 불과합니다. 제가 글을 쓰고 있는 이 순간부터 크리스마스까지는 아직도 8주나 남아 있습니다!

이 때가 다가오면, 제 아내와 저는 여지없이 얼마간의 시간을 쪼개어 우리가 쇼핑물이라고 부르는 정글로 모험을 하러 가서 다른 인파와 함께 휩쓸려 크리스마스 쇼핑을 할 것입니다. 이 때 저희 부부는 열심히 일해서 벌은 현찰을 가지고 세 아이들을 위한 선물들을 마련할 것입니다. 아무도 저희에게 이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습니다. 저희가 선물의 전액을 지불하는 것은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크리스마스 아침, 혹은 저희가 아이들의 뒤통에 넘어간다면 그보다 더 일찍, 이 선물들은 이 순간이 오기를 기다릴 수 없었던 세 명의 “광란하는” 아이들에게 조건 없이 주어집니다.

의심할 여지 없이 당신 또한 크리스마스나 생일을 맞을 때마다 선물을 한두 개 쯤 받고 즐거워 할 것입니다.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정말로 좋은 일입니다.

크리스마스에 대해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습니다. 만일 저희 부부가 아이들에게 “착하게 굴라”고

말하고,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마스 선물을 주지 않을 거라고 수개월에 걸쳐 경고한다 하더라도 아이들은 그것이 전부 농담이라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사실 아이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착했는지 혹은 나빴는지 상관없이 선물을 받을 거라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조차도 선물은 행위[DOING]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압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은 이미 되어진 일[DONE]에 대한 것입니다. 그 어떤 열 살짜리 어린아이도 크리스마스 선물을 받기 위해 값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전 세계의 유치원생, 초등학교생, 청소년들, 그리고 심지어는 젊은 청년들까지도 크리스마스 선물은 부모님께서 값을 내고 사서 자신들에게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치 범세계적인 법칙과도 같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죄값의 지불—지옥으로부터의 구원—에 관하여 말씀하실 때 이를 말 그대로 선물이라고 부르십니다. 이것은 당신을 위한 그분으로부터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선물입니다.

로마서 6:23은, “죄의 값은 사망이나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한 영원한 생명이니라” 라

고 말씀합니다. 대답은 간단명료합니다.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요한복음 3:16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선물이라고 반복하여 말씀합니다. 다음 성경 구절들을 주의하여 보시고 하나님께서 이 선물에 대해 얼마나 자주 언급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러나 거저 주시는 이 선물은 또한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의 범죄를 통해 많은 사람이 죽었을진대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한 선물은 더욱더 많은 사람에게 넘쳤기 때문이니라. 또 이 선물은 죄 지은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과 같지 아니하니 이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심판은 정죄에 이르렀으나 많은 범죄로 인한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은 칭의에 이르기 때문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한 사람을 통하여 균립하였을진대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더욱더 생명 안에서 군림 하리라.) 그러므로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심판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사람의 의로 말미암아 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 모든 사람에게 임하여 생명의 칭의에 이르렀나니 (로마서 5:15-18)

이 말씀의 중심 메시지는 아담의 죄로 인하여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임한 것과 같이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값없는 선물(칭의와 의로움)도 한 사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유효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칭의 [justification] 라는 단어는 “의롭다고 선언함”을 의미합니다. 의롭다 [righteous] 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완벽함 혹은 옳음”을 의미합니다. 메시지는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의롭다 (무죄하다) 선언하시려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선물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고린도전서 9:15에서 우리는 또다시 읽게 됩니다. “이루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선물로 인하여 그분께 감사 하노라” (고린도후서 9:15).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 2:8에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

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의심의 여지 없이, 이 선물은 여태껏 당신이 받았던 것 중 가장 위대한 선물입니다. 이 선물은 당신의 전 생애를 통틀어 모든 크리스마스와 생일에 받은 그 무엇보다도 가장 좋은 것입니다! 이 선물은 당신이 영원을 천국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합니다.

선물에는 당신이 깨달아야만 하는 두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선물은 완전한 무료여야만 합니다. 진정한 선물은 사거나 일하여 얻을 수 없습니다. 진정한 선물에는 어떤 조건들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선물은 다른 사람에게 의해 값이 치러진 후 값없이 제시되어야만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일하여 얻거나,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다거나, 값을 치른다거나, 혹은 어떤 방법으로라도 선물을 위하여 보상하여야 한다면 그것은 더이상 선물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다음 구절에서 의미하시는 바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그것이 더이상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라. 그러나 만일 그것이 행위에서 난 것이면 더 이상

은혜가 아니니 그렇지 않으면 행위가 더 이상 행위가 아니니라” (로마서 11:6).

은혜란 제가 받을 자격이 없는 것을 받는 것입니다. 자비란 제가 받아 마땅한 것을 받지 않는 것입니다. 자비는 경찰이 과속하는 당신을 불러 세우고 마땅히 벌금을 물어야 하지만 경고만 하고 그냥 보내주는 것입니다. 은혜는 경찰이 과속하는 당신을 불러 세우고서는 단지 사랑한다는 이유만으로 당신에게 \$100 짜리 월마트 선물 카드를 주는 것입니다!

이 선물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당신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자비를 동시에 제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이것을 그분의 은혜의 선물, 즉 과분한 은총으로부터 주어진 것이라고 성경에서 반복하여 말씀하십니다. 디도서 2:11은 “구원을 가져다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2:9는 이와 같이 말씀합니다. “다만 예수님을 보노라. 그분께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시려고 천사들보다 조금 낮게 되셨다가 영광과 존귀로 관을 쓰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선물에 대한 두번째 사실은 그것이 선택적이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강요된 선물은 결코 선물이 될 수 없습니다. 선물은 받는 사람에게 강요되어질 수 없습니다. 선물은 단지 권해질 수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가 보이십니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진리는 행함[DO]이 아닙니다. 그것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DONE]! 많은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영원한 생명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시려 하십니다. 이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하여 지불되었습니다. 이 선물은 일하여 얻거나, 값을 치르거나,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값은 이미 완전히 치러졌습니다.

당신의 죄들에 대한 완전한 용서는 포장된 채 갈보리라 불리는 나무 아래에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당신을 대신해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생명과 피로써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그분께서는 이 선물을 그분의 사랑과 은혜로 당신에게 아무런 대가 없이 제시 하십니다. 이 선물은 그분의 생명의 대가이며,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이것을 받아들이는지 간절한 마음으로 기다리며 지켜보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에게 이것을 가지도록 강요할 수 없고, 이 선물을 얻기 위하여 일하는 당

신의 노력을 받아 들이실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그 선물을 갖기를 고대하고 계십니다!

베드로후서 3:9에서, 하나님께서 “오직 우리를 향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회개하고, 즉 죄의 빛을 인정하고 유일한 치료법이신 그분께 다가가도록 강요하시지 않습니다. 그분께서는 결코 당신에게 강요하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서는 그분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습니다. 그분은 이 선물의 값을 완전히 지불해 놓으시고, 이제 당신의 결정을 기다리십니다...

이 선물을 어떻게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는지 알고 싶으시다면, 이야기를 계속합시다...

제10장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만약 크리스마스 아침이 되었는데도 아이들이 선물 상자의 포장지를 뜯지 않으려 한다면 어떨까요? (물론 이런 일은 일어날 리가 없겠지만 잠깐이나마 이러한 사태가 일어났다고 생각해 봅시다!) 아마 몹시나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선물을 사고, 포장하고, 가슴을 졸이며 기다렸는데, 정작 아이들이 우리가 사준 선물을 원하지 않았다면 정말 실망스러운 것입니다.

자,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날 가능성은 정말 희박합니다! 왜냐고요? 선물을 받는다는 것은 쉬운 일이기 때문입니다! 선물은 우리를 즐겁게 합니다. 선물은 우리를

기대에 차서 학수고대하게 만듭니다. 저는 여태껏 단 한번도 제 아이들에게 선물을 열어보라고 부추켜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절대로 구슬린 적도 없습니다. 제가 아이들이 선물을 받을지 말지 결정하기를 기다려야 했던 적도 전혀 없습니다. 제가 준 선물이 좋은 것이라고 아이들을 설득해야 했던 적도 결코 없습니다.

아이들은 이러한 난관 썸이야 금방 극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제 허락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아이들은 눈앞에 보이는 모든 선물 포장지를 눈 깜짝할 사이에 뜯어 제껴 버립니다.

그렇다면 어째서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에 계신 그들의 아버지로부터는 선물 받기를 주저하는 걸까요?

저는 이 소식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는 것처럼 보이는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이들은 망설입니다. 이들은 믿음과 씨름합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너무도 단순하게 만들어 놓으셨다는 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들은 무언가가 더 있어야만 한다고 추론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쉽게 놓아줄 리가 없지” 라고 그들은 생각합니다. “여기는 분명 함정이 있어. 내가 이 선

물을 받으려면 값을 지불하거나 무언가 대가를 치러야 하는게 분명해.”

여러분, 당신이 어떻게 생각하던 간에 만약 당신이 성경을 믿고자 한다면, 당신은 행함[DO]이 아닌 이루어진 것[DONE]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DONE을 선택한다면, 즉 당신이 구원(죄값의 지불)이 값없는 선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한다면, 이 선물을 실제로 갖기 위하여 단 두 가지의 간단한 결정만 남아있을 뿐입니다.

당신이 어떤 선물이라도 받기 위해서는 두 가지의 간단한 선택을 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 내면적이고, 두 번째는 외면적입니다. 선택이란 다음과 같습니다.

만일 제가 길거리에서 당신에게 다가가 공짜 선물로 현금 \$1,000을 내밀었다면, 당신은 즉시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선택 #1 —나는 이 사람을 믿을 것인가?

당신은 그 자리에 잠시 서서, 저를 바라보고, 훑어보며, 제가 무슨 “꿈꿨어” 인지 가늠하려 할 것입니다. 당신은 저를 믿을지 말지 재빠르게 판단하려 하겠죠. 십중팔구 당신은 저를 의심스러워 할 겁니다. 어찌면 당신이 이 의심으로 인하여 저를 믿지 않기로 결정하고 기분 좋

게 당신의 갈 길이나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이 경우 두 번째 선택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집니다.

하지만 만일 당신이 저를 믿기로 결정한다면, 당신은 내면적인 선택을 마치고, 다음의 외면적인 선택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선택 #2 —나는 이 선물을 받을 것인가?

당신이 제가 \$1,000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당신은 선물을 받지 않겠다고 택할 수 있습니다. 당신은 “고맙습니다만, 사양 하겠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더 그것을 필요로 하는 것 같습니다!” 라고 말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저를 내버려두고 떠나버릴 수도 있습니다. 당신이 저를 믿는다고 하더라도, 여전히 그 선물을 받는 것은 거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선물이란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값없고 선택적이어야만 합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믿어져야 하고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선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주는 사람을 믿고 선물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받아들이겠다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이 두 가지 간단한 선택을 하기 전까지는, 이 선물은 진정으로 당신의 것이 아닙니다. 값은 이미 치러졌습니다. 선물은 포장된 채로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 선물에는

당신의 이름까지 적혀있습니다. 하지만 만약 당신이 이 선물을 믿고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이것은 결코 당신의 것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물인 영원한 생명도 이와 마찬가지로입니다. 당신은 이 선물을 자동적으로 받지 않습니다. 당신이 이 선물을 “선택”을 통하여서 받습니다. 그렇습니다. 값은 치러졌습니다. 이 선물은 준비된 채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에는 당신의 이름이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이것을 내버려두고 떠나기로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당신은 믿지도 않고 받지도 않으리라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한다면 이것은 당신이 이제까지 한 선택 중 가장 최악의 것이 될 것입니다.

자, 제 아이들은 크리스마스와 생일을 맞았을 때, 이 두 가지 선택을 아주 신속하게 합니다. 그들은 대체로 믿고 받는데 있어서 그다지 고민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만난 사람들 중 정말로 많은 수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제 아이들처럼 할 수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당신은 어떻습니까? 이 일에 대해 57가지 방법으로 심사숙고할 필요가 있을까요? 정말로 당신이 이 선물을 받지 말아야 할 82가지의 이유들을 찾아낼 필요가 있는 걸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것

은 무료로 가질 수 있습니다. 만약 당신이 성경을 믿는다면, 만약 당신이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는다면, 당신은 지금 당장 이 선물을 당신의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서는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주 예수님을 시인하고 하나님께서 그분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신 것을 네 마음속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로마서 10:9-10).

보셨습니까?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이것이 믿음의 부분입니다. 그리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것은 받음의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다시 말하자면, 누구든지 구하는 사람은 이 선물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16:31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라. 그리하면 네가 구원을 받고…” 라고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또 요한복음 3:16에서, 예수님께서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신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것은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존하는 생명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께서서는 성경에서 반복하여 이 선물이 믿음과 받음을 통하여 우리의 것이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내면으로부터, 즉 마음속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이는 진정한 신뢰, 즉 믿음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자, 여러분, 믿음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믿음에는 “머리로 믿는 믿음”과 “마음으로 믿는 믿음”이 있습니다. 머리로 믿는 믿음은 단순히 무언가에 대한 지식을 말합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그 지식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만약 제가 LAX 공항에 가서 피닉스⁵행 사우스웨스트 비행기 표를 산다면, 이것은 그 티켓과 항공사가 저를 피닉스로 데려다 줄 것이라는 것을 저의 머리로 믿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제가 그 비행기를 실제로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저는 이 사실을 머리로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머리로 믿는 믿음입니다.

마음으로 믿는 믿음은 실제로 비행기에 “탑승”하는 것. 다시 말해서, 그 비행기가 저를 목적지로 데려다 주리라는 것을 완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5 에리조나 주의 주도—역주

당신은 머리로는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당신은 제가 이 책자 안에 써놓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계실지도 모릅니다. 전 세계 수백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절망적인 상태를 인정하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완전히 치르신 값을 믿으려 하지 않은 채 자신의 죄값을 치르려고 노력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갑니다.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당신은 마음으로 믿는 믿음을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두시겠습니까? 당신에게 다른 어느 것도 당신을 구원할 수 없다고 믿을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은 회개와 믿음의 진실한 마음으로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아설 마음이 있습니까? 당신의 죄값을 치르고 구원받기 위하여 오로지 예수님만 온전히 신뢰하고 진정으로 믿겠습니까?

만일 당신이 불타는 건물의 5층에 갇힌 채로 있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은 소중한 목숨을 건지기 위하여 창문에 매달려서 벽에 달라붙어 있습니다. 당신은 건물을 꼭 붙들고 있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당신을 발견한 10명의 소방관들이 저 아래에서 그물을 펴고, 당신에게 그물로 뛰어 내리라고 소리지르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당신은 그물 그리고 건물 양쪽 모두를 신뢰할 수 없습니다. 만일 둘 다 믿으려고 한다면, 당신은 죽을 것입니다. 어느 쪽이든 100%의 선택을 해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건물을 신뢰한다면, 이 건물은 금방 무너져 내리고 곧 당신은 화염 속에 갇히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일 소방관들을 신뢰한다면, 당신은 꼭 붙들고 있던 건물을 놓아버리고 믿음으로 그물로 뛰어내려야 할 것입니다. 당신에겐 머리로 믿는 믿음 이상이 필요할 것입니다. 당신이 뛰어내리기 위해서는 마음으로 믿는 믿음, 즉 소방관들에 대한 100%의 신뢰가 필요합니다.

눈 깜짝할 순간에 당신은 두 가지 선택을 해야 할 것입니다. 나는 이 소방관들을 믿을 것인가? 나는 이들의 제안을 수락할 것인가? 만약 이 질문들 양쪽 다의 대답이 “예” 라면, 뛰어내리는 것이 상책일 것입니다. 뛰어내림으로써 당신은 소방관들의 제안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것은 간단한 것입니다. 참으로 많은 종교와 체계가 이 문제를 행위[DO] 지향적으로 만들어서 매우 복잡하게

만들어 버립니다.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건물에 꼭 달라 붙은 채 소방관들을 믿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신은 DO 와 DONE 을 동시에 신뢰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어느 쪽인가 하나를 선택해야만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에 대한 선택을 해야만 합니다. 만일 이것이 선물이라면 일해서 얻을 수 없습니다. 만일 당신이 일을 해야만 이것을 얻을 수 있다면, 이것은 선물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이것이 분명한 선물이며 당신이 일하여서 얻을 수 없는 것이라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십니다. 당신은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이십니까? 아니면, 종교입니까? 당신 자신의 의견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두 가지 선택으로 돌아가 봅시다. 나는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나는 그분의 선물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당신을 위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이시라고 마음으로 믿으십니까? 당신이 가진 좋은 점들에도 불구하고, 당신에겐 여전히 죄가 있고 “재건축”의 기적이 필요하다고 믿으십니까?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값을 치르시고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일

어나신 것을 믿으십니까? 만약 진정 이것들을 마음으로 믿는다면 당신은 거의 다다른 것입니다!

이 선물을 받으시겠습니까?

당신이 제 아이들만 같았다면 좋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예, 예, 예... 누가 이 선물을 안받겠어요?! 어떻게 해야 하는지나 어서 말해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있다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매우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로마서 10:13). 당신이 물리적으로 하나님께 걸어가서 영원한 생명을 받아 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분께서는 단순히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신이 마음으로 믿는 믿음과 간단한 기도로써 그분께 구하면 당신은 이 선물을 가질 수 있습니다. 완전히 믿겠다는 당신의 내면적인 결심은 받고자 하는(구하고자 하는) 당신의 외면적인 선택과 더불어 이 선물을 당장 당신의 것으로 만듭니다!

당신이 이 선물을 위하여 무언가를 행하는 것 [DOING]이 아닙니다. 당신이 결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단순히 이미 DONE되어진 것을 받아들이기로 선택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책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전 생애에 걸쳐 들을 것 중 가장 중요한 질문입니다. 이 질문은 당신이 영원을 어디서 보내게 될지 결정합니다.

지금, 바로 이 순간, 하나님의 선물을 믿고 받겠다고 결정하시겠습니까?

저는 당신이 제 아이들과 많이 비슷하리라고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마음의 손으로 이 선물을 받자마자 포장을 뜯어내 버릴 준비가 되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당신은 단지 구하기만 하면 됩니다.

만일 당신이 이미 마음속으로 “믿겠다” 는 결정을 했다면, 당신의 고개를 숙이고 진심으로 이 순간의 조용한 가운데 간단히 그리고, 진실하게 기도하기를 당신에게 권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저는 제 마음으로 당신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이 저의 죄 전부를 위하여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을 믿습니다. 저는 당신께 제가 죄인이라는 것을 고백하며, 지금 저의 개인적인 구주가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당신이 제 삶에 들어오셔서 언젠가 저를 천국으로 데려가

시리라고 당신을 100% 신뢰합니다. 저는 당신이 주신 영원한 생명이라는 값없는 선물을 받아들입니다.

당신의 약속을 지켜주시고 이 기도에 응답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믿고 받아들였나요? 만약 아니라면, 저는 당신이 아주 빠른 시일 내에 그렇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또 다른 하루를 위태롭게 놔두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지금 결정하기를 원하시고, 당신이 그분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를 열망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보라, 지금이 받아 주시는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로다” (고린도후서 6:2).

하나님께서서는 당신의 구조 임무를 완수하셨지만, 구조 받을지를 결정해야 하는 사람은 바로 당신 자신입니다.

만약 당신이 방금 전 이렇게 기도하였다면,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는 당신이 앞으로 할 어떤 결정보다도 가장 위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방금 전 당신의 죄 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완전히 치르셨음을 당신의 회계장부에 쓰셨습니다! 기록은 영원토록 깨끗이 지워졌고 당신은 완전해졌습니다. 의로워졌습니다. 하나님의 눈앞에서

(마치 당신이 결코 죄를 지은 적이 없는 것처럼) 의롭다 칭함을 받았습니다!

이것은 꼭 당신이 다시는 죄를 짓지 않을 것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사실 당신은 여전히 죄를 지을 것이고, 그럼에도 당신은 이미 용서함을 받았으며 그 죄의 값은 이미 치러졌다는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다시 태어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삶 속에 들어 오셔서 머무실 것이며, 이미 그분의 은혜 안에서 당신이 자라도록 도우시기 시작하셨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을 영적으로 바닥부터 재건하셨습니다! 정작 당신은 별 차이를 느끼지 못할지도 모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당신은 당신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말 그대로 새로운 한 세트의 영적인 유전자를 받았습니다. 이제 죄의 유전자는 사라지고 하나님의 생명이 당신 안에 있습니다.

당신은 결코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채로 영원을 마주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에게 어떠한 상황 아래에서도 결코 사라지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주셨습니다. 당신은 이제 결코 죽음을 두려워하거나 죽은 후에 어디로 갈지 불안해 할 필요가 없습니다! 당신은 그리스도

께서 당신을 위해서 이미 하신 일[DONE]을 받아들였습니다. 당신이 이것을 얻기 위하여 아무것도 행[DO]하지 않았기에, 이것을 잃기 위해서도 아무것도 행[DO]할 수 없습니다!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 속해 있고, 그분은 영원히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이십니다.

저는 우리가 다음의 성경 구절로 다시 돌아올 것이라고 이미 말씀 드렸습니다. “또한 그분께서 범법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서 2:10). 여기서 사용된 “살리셨도다” 라는 영어 단어 “quicken” 는 문자 그대로 “살리셨다[made alive]”라는 뜻입니다! 영적으로 말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생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대한 결정인지요. 당신이 얼마나 위대한 미래를 가지고 있는지요. 놀랍고 새로운 생명이 당신 안에 심어졌습니다!

이 책을 손에서 내려놓기 전에 당신이 꼭 알아야 할 것들이 몇 가지 더 있습니다…

달는말

새로운 창조물, 새로운 삶, 새로운 미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단지 “수리” 만이 아닌, 전면적인 영적 “재건축” 이라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을 기억 하십니까? 예수님은 이것을 “다시 태어남” 이라고 부르셨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방금 전 당신에게 일어난 일입니다! 당신은 하나님 가족의 일원으로서 태어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대하여 살아나게 되었으며, 이 거듭남에는 매우 중요한 몇가지 것들이 따릅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 그대로 새로운 창조물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5:17은,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그는 새

로운 창조물이라. 옛 것들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당신은 이전에는 영적으로 죽어 있었으나 이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 살아있습니다. 이는 당신이, 당신 마음 안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하나님과 개인적인 교제를 매일 경험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당신과 갖기를 원하셨던 바로 그런 가까운 관계이며, 이것은 당신 삶에서 온갖 내면적인 변화들을 (보다 나은 쪽으로)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진정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더 좋게 바뀌어질 역량을 갖게 되었습니다. 당신이 허락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성장시키고 내면으로부터 변화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베드로전서 2:2에서, “새로 태어난 아기들로서 말씀의 순수한 젖을 사모하라. 이것은 너희가 그 젖으로 말미암아 성장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우리를 가르칩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서의 당신은 새로 태어난 아기입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고 있으며, 당신의 새로운 삶에는 당신이 경험해야 할 많은 성장이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썩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썩에서 난 것이니 살아 있고 영원히 거하

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니라” 라고 베드로전서 1:23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당신은 성경의 방법대로, 즉 하나님의 방법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하나님의 선물을 받아들이기로 한 당신의 결정으로 인하여 우리가 함께 기뻐하는 가운데 이 책을 닫기 전, 당신이 알아 두어야 할 몇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첫째, 당신은 당신의 구원을 결코 잃을 수 없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영원토록 안전합니다. 이 사실을 말해주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지만, 여기 그 중 몇이 있습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능들이나 현재 있는 것들이나 장래 있을 것들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능히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 놓지 못하리라.—로마서 8:38-39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들은 뒤에 그분을 신뢰하였고 너희가 믿은 뒤

에 또한 그분 안에서 약속의 저 거룩하신 영으로 봉인되었느니라.—에베소서 1:13

에베소서의 이 구절은 당신이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순간 하나님께서 당신을 봉인하셨다고 (그분의 소유권을 나타내는 도장을 당신 위에 영구적으로 찍어 놓으셨다고) 가르칩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또한 히브리서 13:5에서, “내가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고 너를 버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십니다.

이 구절들은 한번 당신이 하나님의 가족으로 태어난 이상 결국 태어날 수 밖에 없다는 하나님의 수많은 약속들 중 단지 일부에 불과합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새로 태어난 아이처럼 자라나기를 원하십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삶에 대하여 배워야 할 것이 많은 것처럼, 당신과 하나님의 관계도 그러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베드로후서 3:18에서 말씀하십니다. “오직 은혜 안에서 자라고 우리 주 곧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서 자라라. 그분께 영광이 이제와 영원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당신이 하나님께 더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방법은 많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서, 그리스도를 믿은 사람들은 성경을 배우고 서로를 격려하기 위하여 교회에 함께 모였습니다. 당신은 진정으로 성경을 믿고 성경을 가르치며, 매주 당신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더 배울 수 있도록 격려해 줄 친구들이 있는 교회를 빨리 찾아야 합니다.

만일 당신이 이곳 스트라이빙 투게더 출판을 통해 저희에게 연락을 주신다면, 저희는 당신이 성경을 배우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자랄 수 있도록 도우며, 또한 당신이 살고 계신 지역에 있는 좋은 교회를 기쁜 마음으로 추천해 드릴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새로운 삶을 받았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눈앞에서 새로운 창조물입니다! 당신은 새로운 영원한 운명과 새로운 하늘의 아버지를 갖고 있습니다! 그분은 당신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고, 당신의 모든 결정을 인도하시고, 당신의 삶을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변화시키고, 그분의 영원한 목적을 성취하는 미래로 당신을 이끌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이 구원을 받기 위해 그분을 믿음으로 신뢰한 것과 똑같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믿음 안에서 그분의 사랑, 그분의 말씀, 그리고 당신의 삶을 위한 그분의 계획

에 대하여 더 많은 것을 배우며 날마다 성장하기를 원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가는 이 여행을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는 당신의 죄의 빛이 해결 되기 때문에, 당신은 어느 때나 그분의 임재 앞으로 나아 오도록 초청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4:16은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을 얻고 필요한 때에 도우시는 은혜를 얻기 위해 은혜의 왕좌로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당신에게는 신부님이나 다른 중재자가 필요치 않습니다. 당신은 하늘에 계신 당신의 아버지께 어느 때나 직접 나아갈 수 있습니다. 당신은 기도를 통하여 그분과 이야기할 수 있고,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 즉 성경을 통하여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분께서는 그분의 말씀에 대해서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들러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히브리서 4:12)라고 하셨습니다.

저는 당신에게 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분께 기도하기를 시작하라고 권합니다. 당신은 서서히 하나님께 더욱 더 가까이 다가가고자 간절히 바라는 당신의 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당신이 하나님을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욱 더 사랑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당신을 위해서 어떤 일들을 하셨는지 알게 되면 알게 될수록, 당신은 그분을 더욱 거부할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처음에 이 책을 다음 구절로 시작했습니다:

주가 말하노라. 이제 오라. 우리가 함께 변론하자. 너희 죄들이 주홍 같을지라도 눈같이 희게 될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이사야서 1:18

당신은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분께서는 당신의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죄를 제거하심으로 인하여, 당신은 그분의 눈 앞에서 새로운 창조물이 되었습니다. 당신이 무언가를 행하여서[DO] 아니라, 그분이 이미 하신 것[DONE]에 의하여...

하나님의 가족이 되신 것을 축하합니다. 당신은 결코 죽음을 다시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일하여 얻지 않고 하나님의 선물을 받았기 때문에 당신은 영원한 생명을 영원토록 약속받았습니다.

자, 당신은 지금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주신 것 중 가장 중요하고 위대한 메시지를 손에 들고 있습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야만 하는 사람들을 아시나요? 그들과 이 메시지를 나누시겠습니까? 이 책 한권을 그들에게 건네 주실 수 있나요? 지금 가서서 다른 누군가에게 이렇게 알려 주십시오...

... DO가 아닙니다...DONE입니다!

이제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삶을 안으로부터 바깥으로 변화시키시도록 하십시오. 당신 안에 거하시는 그분의 선하심이 당신의 선한 삶을 통하여 스스로를 나타낼 수 있도록 허락하십시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선한 행위를 하도록 창조된 자들이니라. 하나님께서 그 선한 행위를 미리 정하신 것은 우리가 그 행위 가운데서 견제 하려 하심이니라” (에베소서 2:10).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십시오. 그분의 은총을 입기 위해서가 아닌, 그 은총이 이미 당신의 것이기 때문에!

당신의 미래를 커다란 확신과 기대를 가지고 내다 보십시오!

그러나 이것은 기록된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것들은 눈이 보지 못하였고 귀가 듣지 못하였으며 사람의 마음속에 들어가지도 못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고린도전서 2:9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할 당신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그분은 당신을 결코 실망시키지 않으실 것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책을 읽고 그리스도를 당신의 개인적인 구주로 믿으셨습니까? 만약 그러하셨다면 성경책 한권과 새 신자를 위한 성경의 진리(*Bible Truth for New Believers*)를 보내드리기 원합니다.

저희가 당신의 결심으로 인하여 함께 기뻐하고 하나님과 당신의 새로운 관계의 성장을 위하여 이 도구들을 보내드릴 수 있도록 가능한 한 빨리 연락해 주십시오.

우편	Striving Together Publications 4020 E. Lancaster Blvd. Lancaster, CA 93535
전화	800.201.7748
이메일	done@strivingtogether.com
온라인	www.strivingtogether.com

저자에 관하여

캐리 슈미트(Cary Schmidt)는 랜캐스터 침례교회의 부목사로서 섬기고 있습니다. 그는 청소년 사역을 이끌며 교회의 미디어와 출판 사역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의 다른 저서로는 *Discover Your Destiny*, *Different by Design*, *Life Quest*, 그리고 *Hook, Line and Sinker* 등이 있습니다.

저희 사역에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신다면 다음 웹사이트들을
찾아 주십시오:

www.strivingtogether.com
도움이 되는 크리스천 자료

www.dailyintheword.org
매일 격려가 되는 말씀